

金 相 鉉 教授指導

碩士學位請求論文

曉堂 崔凡述의 茶道 研究

2005

誠信女子大學校 文化產業大學院

禮節茶道學科 禮茶傳功

朴 保 恩

曉堂 崔凡述의 茶道 研究

金 相 鉉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

誠信女子大學校 文化産業大學院

禮節茶道學科 禮茶傳功

朴 保 恩

認 准 書

朴保恩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文化産業大學院

論 文 概 要

僧侶이면서 獨立運動家이기도한 曉堂 崔凡述은 우리나라의 현대 차문화를 大衆化 하고 이론적으로 體系化 시킨 인물이다.

曉堂은 1916년 13세에 다솔사 월초 스님의 법하에 입산, 출가하였고 1917년 해인사에서 임환경선사로부터 戒를 받았다. 불교의 사상적 영향은 주로 元曉, 卍海 등에게서 받았으며, 차의 이론과 실제적 차생활의 근간은 草衣의 『東茶頌』과 『茶神傳』에 있다.

우리나라의 차역사는 『三國史記』에 나타난 기록처럼 善德女王 때부터였다. 그 후 統一新羅를 거쳐 高麗時代에 접어들면서 더욱 발전하여 일반 서민들의 생활속에서도 飲茶生活이 대중화되었다. 朝鮮後期를 전후로 차는 점점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飲茶生活이 거의 煙滅해갈 단계에 이르렀다. 1945년 해방을 맞고 현대에 접어들면서 茶生活은 차츰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각 도에 한 두 인사만이 겨우 茶를 마시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 희미한 傳統을 찾아 현대의 茶歷史를 이어 주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우리 文化의 本質과 自矜心을 심어 준 이가 바로 사천 다솔사의 曉堂 崔凡述이었다.

어릴 적 늘 차를 즐기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차생활이 몸에 배었던 曉堂은 多率寺에 출가하면서 다솔사 주위에 산재해 있는 차나무와 茶室을 접하면서 더욱 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22년부터 1933년까지 고향으로 일본에서 佛敎學을 공부하였고, 당시의 일본 차계를 보면서 그들의 飲茶禮節과 우리나라 傳來 禮俗을 비교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曉堂은 지식인들 위주의 茶道와 禪房에서의 수행만을 위한 차가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속의 大衆 茶道를 강조하였다. 그 일환으로 ‘韓國의 茶生活史’와 ‘韓國의 멋(茶·茶論)’을 정리 하여 차의 개론서인 『韓國의 茶道』를 저술하였고, 차생활 指導者의 育成과 傳統文化 복원을 기치로 하는 茶會의 발족, 대중 매체와 저술을 통한 茶精神의 전파, 차관련 文獻 발굴, 일지암 복원 추진위원회 고문, 한·일 차문화 교류회의 활성화 등 韓國 茶의 正體性을 찾기 위한 작업에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된다.

물론 그 당시 飲茶의 전통을 이어준 茶人들은 曉堂 이외에도 크게 분류해 보면, 광주의 의재 허백련과 해남의 응송 등이 있었으나, 이론적이며 운동가적으로 大衆化를 위해 앞장 서지는 않았으므로, 茶文化 中興을 위한 입장에서 보면 曉堂의 업적은 현대 茶道史에서 가히 칭송 받을 만하다.

曉堂이 현대 茶文化界에 이바지한 공로는 첫째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차의 概論書인 『韓國의 茶道』를 저술한 것이다. 한국의 차도는 草衣의 東茶頌, 茶神傳 이후 현대에 와서 최초로 씌어진 차 저서로 草衣를 茶聖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소개 하였으며, 차관계 저서들의 표본으로 그 후 출간 되는 茶書들이 대개 이 책의 體制를 따르고 있다.

둘째는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大衆的인 茶道를 선도적으로

이끈 점이다.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차가 아닌 共同의 멋으로서 향유할 것을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茶會를 발족 하였으며, 대중매체와 저술을 통하여 茶의 生活化를 주장하고, 차관계 文獻을 발굴, 수집하여 지상에 발표 하였으며 다술사의 차밭에서 차를 法製하여 차를 나누고, 飲茶法과 그 精神을 전파 하였다.

셋째로는 효당의 독특한 製茶法인 蒸茶法을 전수했다는 점이다. 증차법은 다른 제차법과는 달리 찻잎을 채취한 뒤 뜨거운 물에 잠깐 데친 뒤 제차하는 방법으로, 빈속에 마시거나 장복해도 부작용이 없는 長點이 있다.

네번째는 한국 傳統茶文化의 繼承과 發展을 위한 많은 指導者를 육성하여 차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점이다. 現代 茶界를 이끌고 있는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曉堂門下에서 공부하였고, 그의 茶精神을 繼承하고 있다.

21세기는 文化의 時代라고 한다. 문화콘텐츠를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世界市民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精神運動으로서의 차문화는 세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正體性을 가꾸는 데 무엇보다도 훌륭한 教育的 意味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 茶文化의 大衆化와 復興을 위해 노력하였던 曉堂의 茶精神과 茶生活 研究를 통해 우리의 올곧은 茶文化의 기초를 세워 보고, 韓國의 茶道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論	1
1. 研究 目的 및 方法	1
2. 先行研究	2
II. 曉堂의 生涯와 思想	5
1. 生涯	5
2. 思想的 背景	8
3. 著書 및 著作物	14
4. 交遊關係	18
III. 曉堂의 茶道	21
1. 曉堂 茶法製	23
2. 曉堂의 茶道用心	30
3. 曉堂의 茶精神	49
IV. 曉堂의 茶 大衆化 努力	53
1. 曉堂의 茶文化 運動	53
2. 曉堂 茶道의 傳承	65
3. 茶 大衆化에 끼친 時代史的 意義	66
V. 結論	68

參 考 文 獻

ABSTRACT

附 錄

표 목 차

<표1> 曉堂의 著作物	16
<표2> 茶道用心(茶器, 불, 물)	43

그림목차

<그림1> 만해 한용운목적	11
<그림2> 효당목적 ‘瀾湯詩’	40
<그림3> 효당목적 ‘茶道無門’	50

사진목차

<사진1> 茶의 法製過程	28
<사진2> 韓國의 茶道 표지	54

I. 序 論

1. 研究 目的 및 方法

韓國 고유의 茶道는 現代에 와서 그 명맥이 끊어진 듯 했었는데, 일부 지방의 뜻 있는 몇몇 人士들에 의해 그 여맥이 전해오고 있었다.

그러다 泗川 多率寺 曉堂 崔凡述의 노력으로 호남 지방 일부와 영남 지방에 同好人들의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아마도 전국에서 전남 해남 지방과 경남 진주 사천 지방에 茶人會가 조직된 것은, 절에서 전해오던 고유한 茶文化의 傳承이 비로소 一般人에게 맥을 잇게 된 嚆矢라고 여겨진다.

曉堂은 佛敎人으로서는 元曉의 敎學思想에 심취 하였으며 생활속의 불교를 지향하였고, 茶道人으로서는 草衣의 茶精神을 이어받아 實用的, 實踐的 경향을 보였다.

日本人 오자끼가 綠茶 生産을 기업화한 것과 몇몇 일본인들이 茶에 관한 저서를 쓴 것 이외에 茶는 大衆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日帝下에 있을 당시 嗜好飲料로 茶 보다는 커피가 우리나라 지식인들 내지는 상인층의 전유물이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커피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기호음료로 커피를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해방이 되었고 더불어 커피문화도 미국문화와 함께 대중들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된다.

國內에서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커피문화와 차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뒤로 한 채, 曉堂 崔凡述(1904~1979)은 경상남도 사천 다솔사의 차밭을 가꾸면서 직접 法製도 하고, 법제 된 茶를 愛茶家들에게 나누어

주며, 茶生活을 실천하는 등 대중들에게 飲茶 生活의 중요성과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앞장서게 된다.

光復 後에는 다술사를 중심으로 한 진주를 무대로 茶의 보급과 茶文化 運動을 전개하였다. 曉堂은 茶를 소개하기 위하여 강연을 하였고, 『讀書新聞』을 비롯한 여러 신문·잡지에 茶에 관한 글을 발표하여 1960년대 이후 한국의 茶文化 中興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중들이 차생활에 비상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 또한 『韓國의 茶道』라는 제목의 茶書を 발표한 1975년 이후부터다.

曉堂은 現代茶史의 중요한 획을 그은 人物임은 확실하나 그에 대한 研究 論文이나 學術的 研究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茶의 전통을 이어 준 曉堂의 대중을 위한 茶文化 普及과 茶生活, 그리고 茶道를 어떠한 정신과 방법으로 生活化, 大衆化 시키려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曉堂의 生涯와 思想을 살펴보고, III장은 曉堂의 茶道에서 茶의 法製와 茶生에 實際적으로 요구되는 茶道用心의 내용을 정리하고, 曉堂의 茶生活에 根幹을 이루는 茶精神의 背景을 알아본다. 그리고 IV장에서는 茶의 大衆化 노력과 曉堂 茶道의 傳承을 살펴보고, V장 결론에서는 앞서 연구한 본론의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정리 하고자 한다.

2. 先行 研究

曉堂의 茶道에 관련된 先行研究는 주로 회고록 중심의 略述記가 많으며, 학위 논문이나 학술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간단한 글들도 그의 茶道를 엿볼 수 있다면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 글들을 살펴보면 조영호는 多率寺를 중심으로 한 曉堂의

生涯와 茶生活, 독립운동 당시 활약과 『韓國의 茶道』 저술의 意義를 정리하였다.¹ 여연은 현대 茶文化의 茶頭로서, 韓國茶人聯合會의 모태인 ‘韓國茶道會’를 발족한 曉堂의 茶生活을 살펴보았다.² 김화수는 ‘茶道無門’의 茶精神으로 일관되었던 그의 茶生活의 전모를 略記 형식으로 언급하였다.³ 채원화는 ‘般若露’ 製茶法을 소개하고 있으며,⁴ “曉堂과 韓國茶道會, 그리고 韓國茶人會”에서는 曉堂의 차도계에서의 공로와 韓國茶道會 발족의 歷史的 意義를 규명하고 있다.⁵ 최규용은 大衆 茶道를 위해 힘쓰며, 茶를 법제하여 보시하는 曉堂의 공덕을 致賀 하고 있다.⁶

印權煥은 “다술사의 차향”에서 曉堂을 통해 茶를 처음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 하며⁷, 강석희의 “차, 曉堂스님, 그리고 나”,⁸ 윤병상의 “韓國의 茶道”,⁹ 김지건의 “원효학의 맥을 이은 曉堂 스님”,¹⁰ 김상현의 “海印寺와 茶文化”¹¹ 등이 있으며, 김태신은 문학작품인 “라홀라의 사모곡”에서 曉堂의 茶生과 茶道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¹² 또한 申炯魯의 “내가 만난 범부선생과 曉堂스님”,¹³ 홍정표의 “그 때를

¹ 조영호, “유마의 후예들,” 『대원』 53호(1987.4.), pp.46-49.

² 여연, “차의 중정과 인간 정신의 위대한 만남,” 『차인』,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1998.7), pp.17-19.

³ 김화수, “효당스님의略記(上·下),” 『茶心』 9집 (茶心文化硏究會, 1990.봄.), pp.67-71.

⁴ 채원화, “曉堂의 ‘반야로’ 製茶法,” 『차인』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1998. 7.), pp.26-27.

⁵ 채원화, “효당과 한국 차도회, 그리고 한국차인회,” 『차인』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1990.1), pp.404-413.

⁶ 최규용, “효당 최범술과 차,” 『錦堂茶話』 (서울:이른아침, 1978), pp.244-247.

⁷ 인권환, “다술사의 차향,” 『설록차』 (태평양건강사업본부, 1986.6), pp.4-5.

⁸ 강석희, “차, 효당스님, 그리고 나,” 『설록차』 (태평양건강사업본부, 1990.2), pp.4-5.

⁹ 윤병상, “韓國의 茶道,” 『차인』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1998.7), pp.24-25.

¹⁰ 김지건, “원효학의 맥을 이은 효당 스님,” 『한국인』 (1989.7), pp.96-99.

¹¹ 김상현, “海印寺와 茶文化,” 『다로경권합본네번째』 (海印僧伽大學 茶經苑, 2003.4), pp.580-585.

¹²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 (서울:한길사, 1991).

¹³ 신형로, “내가 만난 범부선생과 효당스님,” 『茶心』 봄호, (茶心文化硏究會, 1988.) pp.77-81.

되돌아 봅니다”¹⁴, 오제봉의 “墨香茶香”¹⁵, 오제봉 “50년의 법연이 너무도 허망합니다”¹⁶, 정원호의 “왜 좀 더 배우지 못했던가”¹⁷, 김진태의 “효당과 다술사, 그리고 차”¹⁸, 김운학의 “효당의 차풍”¹⁹, 임혜봉의 “최범술-열렬한 민족주의자였던 기승(1),(2)”²⁰ 등이 있다.

위의 글들은 略述 형태이지만 曉堂의 生涯, 曉堂의 茶道와 茶生活, 茶의 法製 過程, 현대 최초의 茶概論書인 『韓國의 茶道』가 가지는 意義, 茶文化의 大衆化를 위한 活動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¹⁴ 홍정표, “그 때를 되돌아 봅니다,” 『해인』 창간호, (해인중학교, 1990).

¹⁵ 오제봉, “묵향차향,” 『月刊茶談』 (1988.11), pp.41-44.

¹⁶ _____, “50년의 법연이 너무도 허망합니다,” 『국제신문』 (1979.7.18).

¹⁷ 정원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울:동국출판사, 1983).

¹⁸ 김진태, “曉堂과 다술사, 그리고 차,” 『차인』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1998.7), pp.20-23.

¹⁹ 김운학, “曉堂의 차풍,” 『한국의 차문화』 (서울:현암사, 1981).

²⁰ 임혜봉, “최범술-열렬한 민족주의자였던 기승(1),(2),” 『선우도량』 13호 (대한불교조계종, 1998.8).

Ⅱ. 曉堂의 生涯와 思想

1. 生涯

曉堂 崔凡述(1904~1979)은 僧侶이면서 獨立運動家, 教育家, 茶道人, 政治家 등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었다. 凡述은 호적상의 이름이고 족보에는 향렬에 따라 英煥으로 기재되어 있다²¹. 당호는 錦峯, 법호는 曉堂²²이라 불리었으며 石蘭, 小小姓의 호가 있다.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 금전리 반개라는 어촌에서 태어났다. 성씨는 경주 최씨, 아버지는 崔鍾浩, 어머니는 金順連이다.

曉堂은 13세 되던 해에 이웃 면에 있는 多率寺의 월초스님 法下에 들어와 入山하게 된다.²³ 1915년 곤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泗川 多率寺로 출가 하였다. 1917년 海印寺地方學林에 입학하고, 林幻鏡 선사를 은사로 戒를 받았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영남지역에 배포하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고통을 받았으며, 1922년 6월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²⁴ 1923년 朴烈, 朴興坤, 陸洪均 등과 不逞鮮人社를 조직하여 『不逞鮮人誌』를 간행하였고, 박렬의 일본천황 암살계획을 돕고자 상해로 잠입하여 폭탄을 운반하여 왔으며, 大逆事件에 연루되어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루었다.²⁵ 그 이후에 曉堂은 학업에 전념하여, 1923년 4월 일련중 입정중학교에 편입학, 1926년 物理學校 입학,

²¹ 김지건, “원효학의 맥을 이은 曉堂 스님,” 『한국인』 (1989,7), p.96.

²² 최범술은 50대 이후에는 元曉大師를 숭상한다는 뜻에서 曉堂이라고 했다.

²³ 이 정, 『한국불교인명사전』 (서울:불교시대사,1993),p.306.

²⁴ 이수덕, 『한국불교 1600년사』 (서울:불교텔레비전,2002),p.629.

²⁵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서울:민족사,2001),pp.319-327.

1927년 대정대학 예과에 입학한다. 曉堂은 학업을 하면서 재일불교청년운동에 가담하였고 1927년 4월 재일조선불교청년회에 가담하여 간부로 활동하였다.²⁶

학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28년에는 多率寺 住持로 피선되기도 하였다. 여름·겨울 방학 때엔 多率寺에 와서 住持 직무에 충실 하였다. 그는 재학 중 동경 유학생들을 결속하여 불교와 일반 철학을 연구하는 연구회인 三藏學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9년 봄에는 대정대학 불교과에 정식 입학하였다. 1930년 5월경 金法麟등과 불교계 항일 비밀결사인 卍黨에 가입하였다.²⁷

曉堂은 다솔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불교청년운동의 재정비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만 하였다. 1931년 3월 불교청년운동 재조직의 일환으로 등장한 조선불교청년동맹 동경 동맹의 집행위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1933년 조선불교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해에 명성여자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하였다.²⁸ 또한, 일본 유학 시절 인도승 달마바라로부터 전하여 받은 佛舍利 3과를 범어사에 기증하여 탑을 세우고 봉안 하였는데, 이는 달마바라가 불다가야의 대탑을 수리하고 그 탑 중의 불사리 약간을 나누어 받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한 것 중의 일부이다. 1934년 사천에 초등과정의 光明學院을 설립하였고²⁹, 1936년 다솔사불교전수강원을 설립하였으며, 이 무렵 金法麟· 金凡父 등이 다솔사에 머무르며 은밀히 독립운동을 하였다. 1937년 고려대장경을 印經하였고, 1942년 7월 金法麟 등과 海印寺· 多率寺 등에서 수강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으며, 조선어학회운동으로 홍원경찰서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3년 9월부터 13개월 동안 卍堂事件 때문에 경상남도경찰국에

²⁶ 김상현, “海印寺와 茶文化,” 『다로경권합본네번째』(海印僧伽大學 茶經苑, 2003.4), pp.580-585.

²⁷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회고록41),” 『국제신문』 1975. 3.22. 5면.

²⁸ 상계서(42회).

²⁹ 상계서(43회).

구급되었다.³⁰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 대한불교단체 대표에 피임 되었고, 이 해에 해인사 주지가 되었으며, 국민대학을 창설하고 이사장에 취임하였다.³¹

1948년 5·10선거 당시 사천·삼천포에서 출마하여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1951년 해인중고등학교를 창설했고, 이듬해에는 해인대학을 설립하고 이사장 및 학장에 취임하였다.³² 1960년 이후 多率寺의 조실로 元曉 敎學 및 茶道 研究에 전념하였고, 다솔사와 진주를 무대로 茶의 普及과 茶文化 運動을 전개하였다.

曉堂은 『讀書新聞』을 비롯한 여러 신문·잡지에 茶에 관한 글을 발표하여 1960년대 이후 韓國의 茶文化 진작에 크게 기여 하는 한편, 1917년 다솔사에 출가한 이래 다솔사 주위에 산재해 있는 차나무와 茶室 등에서 茶生活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차를 마시며 차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또한 1922년부터 1933년까지 동경에 유학하면서 명망 높은 불승들과 교유를 하였다. 귀국 후 불교청년총동맹 집행위원장, 명성학교 교장, 해인사 법무, 주지 등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차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차를 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차를 보급하는 데 앞장서 왔다. 曉堂은 다솔사의 만여 평의 차밭에서 100여 통의 차를 생산하고 작설차라 불리던 다솔사 차를 그의 제자 정원호와 합의해 최상품을 ‘般若露’, 상품을 ‘般若茶’로 이름지어 분류하였다.³³ “茶는 평화의 상징이며 茶道는 평화로 가는 길이다. 한잔의 茶를 놓고 마주 앉아 그 빛을, 그 향기와 맛을 음미하면서 담소하는 정경은 평화의 상징인 것이다”.³⁴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태도로 그 眞味를 음미하면서 생활하는 데 참된 茶道의 意義가 있음을 피력한 그는 茶道의 生活化,

³⁰ 상계서(44회).

³¹ 이 정, 『한국불교인명사전』(서울:불교시대사, 1993), pp.306-307.

³²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서울:민족사, 2001), pp.351-352.

³³ 조영호, “曉堂 최범술,” 『대원』 53호, (1987.4), p.47.

³⁴ 상계서, p.46.

大衆化를 강조했다.

1969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1979년 7월 10일, 세수 76세로 입적하자 다솔사에 浮屠를 봉안 하였고, 1986년 일제하의 3·1운동과 만당 참여 등의 독립유공자로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³⁵

曉堂 崔凡述은 13세에 다솔사에 입문하여 76세로 서울 정릉 보현암에서 입적하기까지 60여년에 걸쳐 다솔사 행원도량을 근거지로 하여 원효성사 교학의 복원과 차선삼매 생활을 해왔다.

2. 思想的 背景

曉堂은 불가의 큰 스님으로, 조국광복을 위한 獨立運動家로,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후학양성에 애쓰는 教育家로, 제헌국회에 참여한 政治人으로, 한국의 茶傳統을 잇는 茶人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치열한 삶을 이끌었다.

그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 하기 위해 1929년 大正大學 佛敎學科에 입학하였다. 語學으로는 산스크리트어(梵語)와 프랑스어를 공부하였고, 佛敎學으로는 在世佛敎, 原始佛敎, 部派佛敎의 각 교리와 인도·중국·일본 등 각국의 佛敎敎理史를 배웠다. 또한 사회사, 정치사, 민속사, 考古學과 중국으로 東傳된 譯經史를 위시하여 한국에 전래된 역사에 관한 것도 공부 했다. 그가 매우 유의해 배운 것은 대승불교의 전래와 불교미술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인도의 용수보살, 무착과 세친이며 논리의 정묘한 경지를 개척한 진나보살등에 심취했다.³⁶ 이들은 우리나라의 元曉大師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曉堂은 대학시절에 이미

³⁵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편찬, 『독립유공자공훈록제8권, 의열투쟁추가포상자(86~89)』, (국가보훈처, 1990), pp.534~535.

³⁶ 최범술, 전계서(41회).

元曉大師의 교학을 체계화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의 불교학의 사상적 연원은 元曉에게서 받았다고 말 할 수 있다. 曉堂은 16세 때 海印寺에서 장도환의 저서 『위인 원효』라는 소책자를 읽고 元曉大師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元曉의 교학복원을 평생의 좌표로 삼았다.³⁷ 曉堂은 그 법호가 말하듯이 신라의 元曉大師를 거울 삼아 大乘 菩薩行을 실천하였는데 茶文化를 중심으로 佛教思想의 暢達에 기여하였다.

元曉(617~686)는 신라시대의 고승이며 학승으로, 성은 설씨, 원효는 법명, 아명은 誓幢이다. 648년 황룡사에서 불가에 입문하여 각종 불전을 섭렵하며 수도에 정진하였다. 일정한 스승을 모시고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타고난 총명으로 널리 典籍을 섭렵하여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는 최대의 학자이자 사상가가 되었다. 34세에 義湘과 함께 당나라로 가던중 해골에 권 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의상과 헤어져서 돌아왔다. 이후 태종무열왕의 둘째딸인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는데, 스스로 卜性居士, 小性居士라고 칭하고 속인 행세를 하였다. 현존하는 그의 저술은 20부 22권이 있으며, 특히 그의 『大乘起信論』은 중국 고승들이 海東疏라하여 즐겨 인용하였고 『金剛三昧經論』은 인도의 馬鳴, 용수 등과 같은 고승이 아니고는 얻기 힘든 論이라는 명칭을 받은 저작으로서 그의 世界觀을 알 수 있는 대저술이다.

그는 學僧으로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民衆敎化僧으로서 당시 왕실 중심의 貴族化된 佛教를 民衆佛教로 바꾸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 종파주의적인 방향으로 달리던 불교이론을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회통시키려하였는데 그것을 오늘날 원효의 和靜思想이라 부르며 이것은 그의 一心思想, 無碍思想과 함께 원효사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낸

³⁷ 동계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사상은 너무나 다양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나 항상 '하나' 라는 구심점을 향하였고 화쟁과 자유를 제창하였다.³⁸

불교에 있어서 和의 원리는 이처럼 實踐原理를 중시하는 석가모니에서 그 싹이 나타난 셈이고 이는 大衆 敎化에 뜻을 두어 진속일여를 주장한 대승불교 후기에까지 면면히 이어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曉堂의 茶生活과 茶精神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草衣를 들 수 있다. 현대 최초의 차 개론서인 『韓國의 茶道』는 草衣의 『東茶頌』과 『茶神傳』을 기반으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저술한 것이다. 이는 草衣의 차정신과 차생활을 통해 볼 때, 茶道란 우리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수 있는 데 曉堂은 이러한 草衣의 차론을 정리하여 전파함으로써 잊혀져가던 한국의 전통 차도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草衣禪師(1786~1866)는 조선후기의 禪僧으로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으며, 法名이 草衣이고 字는 中孚, 俗名은 張意恂이다. 15세에 출가한 초의는 60여년간의 수행과 함께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 당대의 지식인들과 교유를 통해 茶道, 詩·書·畫 등 전통 생활문화의 발전과 禪 불교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³⁹

그리고, 『東茶頌』 저술을 통해 사라져가던 한국의 차문화를 중흥 발전시킨 점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며, 『東茶頌』은 한국의 茶經으로 칭해질 정도로 한국차도를 대표하는 저술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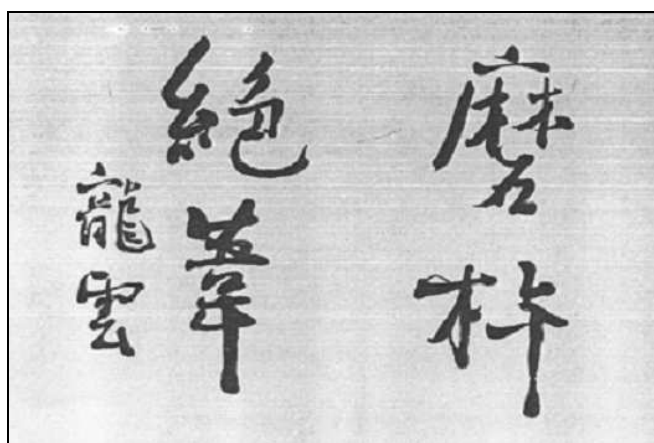
그의 茶禪一味 思想은 茶와 禪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시작된다. 草衣는 차를 마시되 '法喜禪悅食'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잔의 차를 통하여 법희선열을 맛본다고 한 것은 바로 茶禪一味 思想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그는 茶의 성품이 샷됨이 없어서 어떠한 욕심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고, 때문지 않은 본래의 원천과도 같은

³⁸ 불교신문사, 『한국불교 인물사상사』 (서울: 불교신문사편, 1990).

³⁹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것이라고 하여 無着波羅蜜이라고도 하였다. "차의 진예없는 정기를 마시거늘 어찌 큰 도를 이룰 날이 멀다고만 하겠는가(塵穢除盡精氣入大道得成何遠哉)!" 라고 하였다. 초의의 茶道는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며, 그 잘 끓은 물과 좋은 차를 적절히 조합하여 마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그의 생애는 오로지 좌선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 생활 속에서 멋을 찾고 佛法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 나 '諸法不二'를 강조하였다. 그에게는 茶와 禪이 별개의 둘이 아니고, 詩와 그림이 둘이 아니며, 詩와 禪이 둘이 아니었다. 1866년 나이 80세, 법랍 65세로 입적하였다.

曉堂에게 있어 또 다른 思想的 影響을 준 사람은 卍海 韓龍雲이었다. 曉堂이 암울한 日帝 時代에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가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하는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할 당시 卍海 韓龍雲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옹호한 기상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였다. 曉堂은 만당의 일원으로 활약하던 그 시기에 卍海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1>은 卍海와 曉堂의 교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그림 1 : 卍海 韓龍雲 목적 : 후학 최범술의 대정대학 졸업을 축하하는 뜻으로 쓴 글씨>⁴⁰

⁴⁰ 임중빈, 『만해 한용운』 (서울:범우사, 2000), p.3

1939년 여름 曉堂은 多率寺 강당에서 日本 僧侶 40여명을 초청하여 법회를 열었다. 순수한 불교와 학문에 대한 강론을 위주한 법회였는데, 그 법회에는 韓國의 僧侶들도 참석하였다. 曉堂은 그 법회를 ‘己卯多率寺安居’⁴¹라 하였다. 그 법회가 개최된 다음날, 多率寺에서는 卍海 韓龍雲의 회갑을 기념하는 잔치가 열렸다. 曉堂은 어두웠던 일제 치하에서 卍海와의 특별한 인연을 키워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卍海는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입적하게 된다. 입적후 曉堂은 卍海가 머물던 심우장을 찾아가 卍海의 서가를 정리 하였다.

그것은 후일 曉堂이 卍海의 유품을 보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며 卍海의 전집을 간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그에 대한 각별함을 行動으로 보여 주었다.

卍海 韓龍雲은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이다. 그러나 卍海의 행적과 그가 지향한 이상은 승려에서 머물 수 없었다. 그는 독립운동가로, 시인으로, 소설가로, 불교개혁론자로, 저술가로, 사상가로 다양한 족적을 우리에게 남겼다.⁴²

韓龍雲(1879~1944)은 독립운동가. 본명은 貞玉, 아명은 裕天. 법명은 용운, 법호는 卍海(萬海, 卍海). 洪城 출생. 6세 때 서당에 들어가 한학을 배우고, 18세 때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하였으나 실패하자 피신하여 1896년 설악산 五歲庵에 들어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05년 麟蹄의 百潭寺에서 승려가 되었고 萬化에게 법을 받았다. 1908년 전국사찰대표 52명의 한 사람으로 元興寺에서 成宗 宗務院을 설립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의 國恥를 참지 못하여 중국으로 망명, 독립군군관학교를 방문한 뒤 만주·시베리아 등지를 방랑하다가 1913년 귀국하여 불교학원에서 교직생활을 하였다. 같은 해 梵魚寺에 들어가

⁴¹ 김광식, “卍海와 曉堂 그리고 다술사”, 『유심』(1987. 8), p.40-44.

⁴² 불교신문사편, 『한국불교 인물사상사』(불교신문사, 1990).

『佛敎大典』을 저술, 대승불교의 반야사상과 불교정신을 널리 펴는 데 힘썼다. 1918년 월간 불교잡지 ‘惟心’을 간행하였고,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내놓고 문학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27년 新幹會에 가입, 중앙집행위원으로 경성지회장을 지냈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朝鮮佛敎靑年同盟으로 개칭,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월간 『佛敎』誌를 인수하여 속간하였다. 1935년 첫 장편소설 ‘黑風’을 조선일보에 연재하였고, 1937년 불교관계 항일 단체인 卍黨 事件의 배후자로 검거되었다. 그 뒤 계속하여 불교의 혁신운동과 작품활동을 계속하였다. 시에 있어서 퇴폐적인 서정성을 배격하고 불교적인 ‘님’을 자연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은유법으로 일체에 저항하는 민족정신과 불교에 의한 중생제도를 노래하였다.

曉堂은 卍海 韓龍雲의 사상을 얘기 할 때

……사상과 생활이 일치되는 점이 아주 철저한 분이였다.
세숫물을 아끼는 것이라든가 신발을 벗어 놓는 것 하나까지도 法道에 어긋나는 일이 추호도 없으셨다. 옛 祖師 스님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체득한 듯이 보였다……⁴³

라고 적고 있으며, 또한 卍海 韓龍雲의 ‘님’ 사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대승’이란 현대 말로 하면 ‘근본원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승기신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름 붙이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굳이 ‘대승’이라고 한 것인데 韓龍雲 선생은 그 자리를 ‘님’이라고 붙인 것이다. 그 자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久遠實相의 佛覺 자리 또는 自性を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韓龍雲 선생은 ‘내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체득한 분이라 하겠다.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노릇을 말로 ‘민족혼’이라 하던지 ‘국가의식’이라 하던지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면 覺行도 하고 覺他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성을

⁴³ 최범술, “한용운선생의 사상,” 『불광』 41(1978.3), p.32.

완전히 체득한 자리로서 如來意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⁴

曉堂의 사상적 根幹을 이루는 元曉大師, 草衣 張意旬, 衲海 韓龍雲 등은 모두 僧侶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대를 대표 하던 知識人 이었다. 또한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달랐으나, 民衆을 향한 求道者의 자세와 現實 參與意識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茶生¹을 통해 平常心-중정의 도, 묘계환중, 자각과 각행, 지은보은의 정신을 삶에서 얻을 수 있도록 대중을 이끌고, 이의 실천을 통해 佛道場의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높은 理想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차를 통해서 法喜禪悅을 얻고 중생구제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며, 茶禪一味의 삶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여 대중교화에 힘썼던 우리의 스승이라 사료된다.

3. 著書 및 著作物

한 사람의 精神世界, 思想은 그 사람의 著書나 著作物을 살펴봄으로써 유추해 볼 수 있다. 曉堂의 저서나 저작물들 중 불교 관련 論文으로는 『元曉大師般若心經復元疏』, 『十門和諍論 복원을 위한 모집 자료』, 『海印寺寺刊藏經目錄』 등이 있으며 『海印寺와 三一運動』, 『六時行願禮懺文』의 강의 초록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와, 茶道 관련물로는 『韓國의 茶道』 등의 저서가 있다. 그리고, 미완의 회고록으로 국제신보에 연재한 『청춘은 아름다워라』와 여러 잡지에 투고한 글들이 <표1>과 같다. 또한 1959년 이후부터 元曉大師의 교학 연구와 그 교리 강의에 종사하고, 저술에 몰두하였다. 소실위기에 있던 『海印寺寺刊藏經目錄』을 정리하여 연세대학교 『동방학지』에 기고

⁴⁴ 상계서, p.33.

하였고, 元曉大師가 찬술한 論疏인 『般若心經疏』는 이름만 전해올 뿐 내용은 알 수 없었는데 『般若波羅蜜多心經復元疏』를 추진하여 疏가 완성되었다.⁴⁵ 이를 동경에서 발행되는 신라 불교연구논총에 기고했으며 元曉大師의 명저 『十門和諍論』은 殘簡의 일부가 전해올 뿐인데 오랜세월 동안 그 복원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 마침내 복원이 성취되었다.⁴⁶

그리고 『白花道場發願文』, 『大覺國師文集』, 『卍海禪師漢詩稿』, 『草衣禪師文集』 등의 영인본은 구할 길이 없었는데, 曉堂의 노고로 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⁴⁷

⁴⁵ 최범술, “원효대사 반야심경 복원소,” 『동방학지』 12 (서울:연세대학교동방학연구소, 1972), pp.1,

⁴⁶ 김지건, “원효학의 맥을 이은 曉堂 스님,” 『한국인』 (1989.7), pp.96-99.

⁴⁷ 채원화, “曉堂의 삶과 茶道,” 『茶道』 (2004.4), p.28.

<표1> 曉堂의 著作物

번호	서명(저작물)	출판사	권호	년도	비고
1	불타의 면영	금강저	금강저15	1927	불교
2	우담발라화의 재현을 축하고	一光	창간호	1928	
3	哀悼의 一片 (故 李英宰 哀悼文)	동경:금강저(기사)	금강저15	1928	
4	비약의 세계	동경:금강저	금강저16	1928	사회진화론
5	佛陀의 戒에 대해서	금강저	금강저17	1929	불교
6	華嚴敎學 六相圓融論에 對하여	금강저	금강저19	1931	불교
7	석란대(石蘭臺)	금강저	금강저20	1932	한시
8	六相圓融に對して	동경	불교학 연구실2	1932	화엄종
9	삼십일본산주지회동건문기	신불교	신불교2호	1937	
10	단재 선생 문집 편찬			1943	
11	己未운동과 독립선언서	신생	창간호	1946	
12	국난에 際하여 전국 동포에게	서울:신생	No.4	1946	
13	故 卍海선생의 大基를 當하여	서울:신생	No.3(7월)	1946	韓龍雲
14	부처님께서 나신 거룩한 날을 맞이하와	불교	No.2	1947	불교
15	신년초심(新年初心)	불교	1월	1948	불교
16	「韓龍雲연구」에 서문 집필			1960	韓龍雲
17	「동양화를 본다」 집필			1962	
18	한국 차생활사	하동:孫永植		1967	茶道
19	3·1운동과 해인사	대한불교		1969	
20	해인사사간장경목록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동방학지11	1970	논문
21	석가탑 복원공사를 말한다	불교계	2권 3호		불교
22	元曉大師반야심경복원소	서울:외솔회	동방학지12	1971	원효
23	철창철학	나라사랑	2집	1971	
24	申伯雨先生에 관한 글			1972	
25	韓龍雲 年譜	신구문화사	韓龍雲전집6	1973	韓龍雲

번호	서명(저작물)	출판사	권호	년도	비고
27	二如印存 序文	晴斯印譜		1973	丁未 榴夏日
28	茶와 禪	讀書新聞		1973, 8.26	茶道
29	韓龍雲전집	신구문화사간		1973	韓龍雲
30	大覺國師 文集 영인 간행, 解題 집필	건국대학교		1974	대각국사
31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서울:보련각	불교문고:3	1974	불교
32	韓國의 茶·茶論	讀書新聞	1회-16회	1974	茶道
33	韓國의 茶道	서울:보련각		1975	茶道
34	韓國의 茶道와 茶僧	법륜사	76호	1975	茶道
35	「일제하의 불교계와 독립운동사」 집필 위촉	국사편찬위원회		1975	
36	청춘은 아름다워라	부산: 국제신문(연재물)	1회-50회	1975	회고록
37	의상대사 백화도량발원문, 仁海선생한시고 영인			1975	의상대사, 韓龍雲
38	정치는 무상한가	월간 중앙	10월	1975	정치
39	全國佛教徒에 告함	법륜	83호	1976	불교
40	韓龍雲 선생의 사상	불광	41호	1978	韓龍雲
41	제현의원 白谷 金振九行狀 집필			1978	

위의 표를 살펴보면 曉堂은 1967년을 기점으로 茶에 대한 관심을 紙上에 나타내기 시작한다. ‘韓國의 茶生活史’, ‘茶와 禪’, ‘韓國의 茶·茶論’, ‘韓國의 茶道와 茶僧’의 제목으로 茶에 대한 글들을 연재하면서 서서히 그의 茶論을 정립시켜 나갔으며, 『韓國의 茶道』를 저술하면서 韓國 茶文化의 正體性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4. 交遊關係

격동의 시대를 이끈 先驅者로서 민족적 지도자 역할을 다방면에서 수행한 曉堂은 스님으로, 敎育者로, 獨立運動家로, 政治人으로, 茶人으로, 1인5역을 했으며 너무도 출중하였던 시대의 영웅이라 할 수 있다.

金凡父 선생이 읊은 한시 중의 「座觀蟲鳥究書契 行聞魚樵采國時」 일절처럼 ‘산에서는 나무꾼에게서 산유화를 듣고 강을 건너면서는 사공에게서 뱃노래를 들으며 역경 속에서 祖國愛的 열정에 찬 생활을 해 왔던 것이다.’⁴⁸

그는 전 生涯를 다방면에서 활동하여,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人士들과 交遊하였다. 그 중에서도 그가 봉명산에 입산한 이후부터 열여섯 나이로 해인사 동학끼리 기미독립운동에 참가한 등등 多率寺에서 60 여년 지내면서 오고가고한 문인묵객과 역사적인 인물들과의 交遊를 정리하여 보면, 多率寺에서 처음 모신 월초스님, 海印寺에서는 임환경 스님을 불가의 스승으로 섬기었다.⁴⁹ 가장 친교로 지냈던 분들로는 김범부 선생과 김법린 선생이니 범부, 법린, 범술 이렇게 하여 당시 지식인들은 소위 ‘三凡’ 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藝能界로는 연장자이긴 하지만 남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선생과는 대단히 돈독하여 呼兄呼弟하는 사이였으며 그 아우 허목재, 소정 변관식, 이당 김은호, 운전 허민, 풍곡 성재휴, 청남 오제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김일엽의 아들인 일당 김태신 화백이 어릴 때 자라던 곳도 多率寺였다.⁵⁰

西洋畫家로는 라혜석, 허참, 변종화, 금오 김차섭, 담거 김길홍 등이

⁴⁸ 曉堂 최범술, “ 曉堂 崔凡述 茶人 書藝展圖錄並參考文類 ,” (1976), p.3.
(묘인 최채경스님이 서울 정릉 보현암 미소실에서 曉堂이 분향한 후, 구술한 것을 정리함)
⁴⁹ 김화수, “ 曉堂스님의 약기, ” 『茶心』 9집 (茶心文化硏究會, 1990), p.67.
⁵⁰ 최범술, 전게서, p.4.

다술사에 머물렀으며, 동양화가인 又峯 최영국, 추전 김화수가 있다.

文人 碩學으로는 산강재 변영만, 그 아우 변수주, 육천 안봉언, 노산 이은상, 유당 김종하, 연민 이가원, 회정 김희곤, 인석 강달수, 조규갑, 이시목, 설창수, 정명수 등 이었다. 또한 朝鮮 獨立運動의 총수적 역할을 하신 巨海 韓龍雲선생과 지운 김철수, 황순주·황성모 부자 및 김달호 등도 자주 왕래 하였다.⁵¹

多率寺 부근의 봉명산 서편에 위치하는 하동 북천에는 학산 문영빈 등이 白山商會를 창설하여 臨時政府의 경제적 뒷받침을 한 분들이 있었는데 하면 多率寺의 한면(面)에 살았던 백낙중, 이우적, 하필언, 정희영, 강아그니아 등은 多率寺에서 共產黨과 民族主義者와의 공동투쟁을 한 史蹟도 있었다. 日帝 治下의 민족주의 단체인 義烈團의 단원으로서 현존하는 사람은 전 경남지사 이기주, 박희창, 신나휴, 이주현, 구여승 등이 있었다.

‘남한에 있어서 삼천포는 모스크바요, 진주는 스탈린그라드이다’ 라고 까지 불리워진 그 震源地는 언제나 多率寺였다.⁵²

한국 文學界의 우수한 작가로서는 김동리·이병주·최인옥 및 구자운 시인 등이 있는가 하면 미당 서정주와 허민 등도 多率寺와 海印寺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은 抵抗詩人들이었다. .

佛敎界에서는 김법린·이동석·허영호·장도환·박윤진·강유문·박영희·서병재·박근섭 등이 주축이 된 佛敎秘密結社인 巨堂運動의 근거지도 多率寺였다.

曉堂보다 낮은 연배이지만 교유하였던 분들로는 진주에 있는 梧林 김상조, 아인 박종한, 海印寺 밑에서 다기 굽는 토우 김종희, 서울에 있는 전각가 청사 안광석 등이 있고, 종교는 다르지만 우의가 깊었던 분으로는

⁵¹ 동계서.

⁵² 상계서, p.5.

연세대학교의 윤병상 교수가 있다.

世俗的 弟子로는 서울에서 정신과 의사를 지냈던 김종해 박사, 동국대 김상현 교수 등이다. 法曹界에는 김진태 검사, 在野 學界에는 覓丁 여익구, 奉丁 윤두병 등이다.⁵³

茶界로는 현재 우리 나라 茶 지도층에 있는 분들로는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명원 김미희, 청남 오제봉, 청사 안광석, 아인 박종한, 우다 정원호, 동효차회의 보성 스님, 석정원의 선혜 스님, 여연 스님, 성우 스님, 반야로차도문화원의 채원회원장, 삼성출판 박물관장 김종규, 황을순 등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人士와 民族獨立을 위한 同志로, 學問을 나누는 學者로, 後學을 양성하는 教育家로, 茶文化 復興을 위한 茶人으로 폭 넓은 교류를 하였다.

曉堂은 『韓國의 茶道』 서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인생의 苦樂을 茶와 함께 하였고, 茶의 五味를 통하여 인생을 음미하였다. 茶는 여러 方面의 人士들과 交遊할 수 있는 좋은 媒介體 였으며 그의 멋 생활을 이끌어 주는 동반자였다.

曉堂은 스스로를 多率學人, 茶人 등으로 칭하였으니 茶文化를 통한 大衆과의 交感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韓國茶文化 발전에 기여한 의재 허백련, 응송 박영희, 청남 오제봉 등과의 交遊는 우리의 茶文化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⁵³ 김화수, “曉堂스님의 略記<上>,” 『茶心』 10집 (茶心文化硏究會, 1990), p.70.

Ⅲ. 曉堂의 茶道

茶道는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며, 그 잘 끓은 물과 좋은 茶를 간 맞게 하여 마시는 평범하고 日常的인 멋 생활이다. 차그릇을 씻고 물을 길어 나르며, 목마를 때 마시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道가 있다. 이것을 옛날의 祖師스님은 “平常心是道”⁵⁴ 라고 했으며, 당나라의 趙州禪師는 道를 묻는 제자를 향해 “喫茶去” 라고 하였다.⁵⁵

즉, 道는 먼 곳에 있지 않고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일상적인 생활 주변에 있다. 이것을 曉堂은 “차에게로 가는 길” 즉 茶道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茶道’ 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草衣 意恂이나, 그 전에 茶道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道’ 라는 말은 儒道·佛道·道家思想 등과 같이 玄學的이고 宗教的인 데에 쓰여 왔으므로, 日常生活을 경시하는 사고체계에서는 道字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草衣는 茶를 잘 끓여내는 진중한 일 그 자체가 中道이며 大道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여 ‘茶道’ 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⁵⁶

⁵⁴ 현각스님, “禪의 세계-마조록,” 『불광』 (2002. 5), p.19.

道不用脩 但莫汚染… 若欲直會其道 平常心是道
何謂平常心 無造作 無是非 無取捨 無斷常 無凡無聖
經云 非凡夫行 非聖賢行 是菩薩行 只如今行住坐臥 應機接物 盡是道
진리는 새삼스럽게 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물들지 않을 뿐이다…
만약 그 道를 알고자 하면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이 곧 진리이다.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이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으며
취사가 없고 단상이 없으며 범성이 없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닌 그것이 곧 보살행이다.” 고 말하고 있다. 지금 행주좌와 하고 응기접물 하는 그것이 모두 道이다.

⁵⁵ 동아시아선학연구소, 『조주선사와 깎다거』 (서울:불교춘추사, 2003), p.69.

⁵⁶ 정영선, “한국 다문화의 중흥조론”, 『다문화연구지』 제7권 (한국다문화연구소, 1998), p. 15.

또한, 佛弟子들의 禪修行의 훌륭한 동반자 역할을 하였던 茶는 茶禪一如, 茶禪一味라는 표현처럼 茶生活이 禪修行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禪은 平常心을 떠나 있지 않다. 즉, 다리를 모우고 앉아 있는 자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禪은 우리들 모든 사람의 그 생활, 그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茶의 생활과 禪의 길은 茶禪一如, 茶禪一味로 나타나며 茶와 禪은 둘일 수 없다⁵⁷.

禪修行과 平常心은 초의선사의 『東茶頌』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홀로 마시면 신(神)이요, 둘이 마시면 승(勝)이요, 서넛은 취미(趣)요, 대여섯은 덤덤할 뿐(泛)이요, 칠 팔 인은 그저 나누어 마시는 것(施也)뿐이다’ 라고 하였다.⁵⁸

이 말 또한 茶를 마시며 마음을 깨끗이 淨化하고 平常心을 찾는 것이 禪修行이며, 茶를 같이 마시는 사람이 많을수록 禪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茶의 生活은 멋을 추구하며 또한 覺性の 길로 이끈다. 차생활을 통한 覺性の 중요성을 언급한 曉堂의 글을 살펴 보면⁵⁹

…… 초의는 『東茶頌』에서 ‘술을 깨우고 잠을 적게 함은 周聖이 證言 한 바이다’ .라고 하였고, 許浚의 「東醫寶鑑」에도 『머리와 눈을 밝히고 利便 하게 하며, 갈증을 덜어 주고 잠을 적게 하며, 모진 毒을 풀어 준다.』라고 하였다……

曉堂은 문헌을 인용하여 茶가 사람에게 주는 物理的인 利點을 강조 하였던 데 당시에 여러 연구 논문 등을 통한 茶의 化學的 成分들이 속속 밝혀져, 曉堂이 강조하는 ‘喫茶를 통한 覺醒의 생활’은 더욱 더 一般人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茶는 기호 식품 중 하나이나,

⁵⁷ 김승호, “역대차인을 통해 본 한국 다도 정신의 고찰”, 『다로경권합본 네번째』, 제84호~제111호(2003.4), p.333.

⁵⁸ 동아시아선학연구소 편저, 『조주선사와 깍다거』 (서울:불교춘추사, 2003), p.90.

⁵⁹ 최범술, 『한국의 차도』 (서울:보련각,1975), p.59.

정성을 다하여 간이 맞는 茶 한잔을 준비하고, ‘내가 과연 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고 반성하는 知恩報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일상의 생활에서 茶道와 茶禪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1. 曉堂의 茶 法製

曉堂은 多率寺 주변에 자생하던 차나무의 씨를 받아 절 뒤쪽 비탈에 대규모 차밭을 만들었다.⁶⁰ 그 야생 차밭을 잘 가꾸어 우리의 茶를 독특한 蒸茶法으로 法製하여 愛茶家들에게 보급하였다. ‘茶를 마시는 민족은 흥한다’는 飲茶興國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였다.

曉堂의 茶 法製는 그의 茶 관련 저술인 「한국의 멋」에서 간략히 그 과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현재 曉堂의 茶 法製 方法을 계승하고 있는 원효정사의 동효차회와 반야로차도문화원에서 그 原形을 찾아 볼 수 있다.⁶¹

또한 草衣의 茶書인 『東茶頌』, 『茶神傳』의 製茶 방식을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문에서 그 내용을 비교하여 보았다.

曉堂은 다슬사 차밭에서 茶를 채엽하여 法製 過程을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손으로만 작업을 하였다. 기업적인 생산이 아니고 소량의 茶를 정성스럽게 법제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을 <사진 1>을 참조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⁶².

① 曉堂은 대개 봄별이 녹녹히 익는 날을 골라 해거름이 막 지기 시작할

⁶⁰ 김대성, 『차문화 유적답사기(상)』 (서울:불교영상,1999),p.307.

⁶¹ 법제 과정은 원효정사의 동효차회와 반야로 차도 문화원의 製茶 수업자료와 曉堂의 「한국의 멋」, 그리고 曉堂 문하에서 공부했던 지인들의 글을 통하여 그 과정들을 정리 하였다.

⁶² 최범술, 한국의 멋, (한국대학생불교 연합회, 1974), pp.64-65.

무렵에야 차를 따기 시작했다⁶³. 찻잎은 일창일기나 일창이기의 찻잎을 선별해서 따온다.(사진 1-1)

曉堂은 「東茶頌」의 차따는 시기를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茶書(만보전서)에 이르기를, “차를 따는 일은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긴다. 너무 빠르면 맛이 온전하지 않고, 늦으면 차신이 흩어진다. 곡우전 5일간의 것이 최상이고 그후 5일간의 것이 다음이며, 그 후 5일간의 것이 또 다음이다.” 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나라 차에 시험해 보면 곡우 전후는 너무 이르니 입하 전후를 알맞은 때로 삼아야 한다.

(茶書云 “採茶之候貴及時 太早則味不全 遲則神散. 以穀雨前五日爲上 後五日次之 後五日又次之.” 然驗之東茶 穀雨前後太早 當以立夏前後爲及時也.)⁶⁴

위의 『東茶頌』의 내용에서 우리 나라는 중국과 기후가 달라 穀雨前後는 너무 이르므로 立夏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曉堂의 차따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 된 글이 없으므로 알 수 없으나 그의 범제 과정이 쓰여진 『한국의 멋』에서 살펴보면 ‘…일창일기나 일창이기의 찻잎을 …’ 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즉 찻잎의 생김새로 살펴보아 曉堂은 立夏 前後의 시기에 採茶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따온 찻잎 중에서 흰잎과 가지, 부스러기 등을 가려낸다.(사진 1-2)
法製하기 전의 찻잎의 선별 작업은 무척 중요한데, 曉堂은 『東茶頌』 <15절>을 참조하여 차만들기 준비 작업을 충실히 하였다.

……새로 따서 흰 잎은 골라 버리고……술이 매우 뜨거울 때를 기다려 차를 떨어뜨리는 데 급히 볶는다……⁶⁵

⁶³ 김진태, “曉堂과 다술사, 그리고 차”, 『차인』, (1998,7), p.22.

⁶⁴ 정영선 역, 『東茶頌』(서울:너럭바위,2002), p.73.

⁶⁵ 정영선 역, 『東茶頌』(서울:너럭바위,2002),p.77.

즉, 묵은 가지나 다른 나뭇잎, 원잎, 나쁜 찻잎 등을 골라내 찻잎의 크기를 고르게 한다. 그래야만 뒤을 때 찻잎이 고루고루 뒤어지고 비빌때도 편하며 덩어리가 생기지 않는다.

③ 그것을 소쿠리에 담아 장독대 위에 올려 놓고 저녁 첫 이슬을 맞혔다가 어둠이 지상을 완전히 덮기 시작하면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차를 따는 날의 일기는 매우 중요한데 구름 낀 날이나 비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은 피한다. 특히, 曉堂은 저녁 첫 이슬을 맞힌 후에 차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슬에 흠뻑 젖은 찻잎은 기운이 충만하고 향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茶의 稟性和 茶神이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東茶頌』 <14節>을 살펴보면 茶 따는 時期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차를 딸 때는 “밤새 구름 한 점 없었고 이슬에 흠뻑 젖은 것을 따는 것이 가장 좋고, 낮에 딸 것은 그 다음이며, 장마 기간에는 따서는 안된다.” 고 했다.⁶⁶

曉堂은 『東茶頌』의 내용처럼 採茶時에도 양질의 찻잎을 얻기 위해 適期에 精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먼저 차나무에서 딴 生葉을 소쿠리에 담아 끓는 물에 슬쩍 담갔다가 건져낸다. 너무 익으면 茶葉이 변색 될 뿐 아니라 성분이 파괴되어 맛을 버리게 되므로 슬쩍 데쳐내는 것이다. (사진 1-4) 데쳐낸 찻잎을 대자리(竹席)에 펴서 그늘진 곳에 널어 말린다. 아주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눅눅할 정도로 물기를 뺀다. (사진1-5)

張意恂, 『東茶頌』 <15節>, 造茶篇云 “新採 揀去老葉 熱鍋焙之 候鍋極熱 始下 茶急炒…”

⁶⁶ 정영선 역, 『東茶頌』 (서울:너럭바위, 2002), p. 73.

張意恂, 『東茶頌』 <14節>, 其採法 “撤夜無雲 溫露採者爲上 日中採者次之 陰雨下不宜採.”

曉堂의 증차는 차의 빛깔이 뛰어나게 좋고 또 엽록소가 오래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냥 덪는 부초차와는 달리 데쳐내는 과정 때문에 맛이 순해져, 장복해도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

⑤ 가마솥의 물을 퍼내고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어서 솥을 바싹 달군 뒤에 차잎을 넣고 덪는다. (사진1-3) 이때 火力의 조절이 중요하다. 화력이 적당해야 제 빛깔과 향기를 낼 수 있다. 그 차솥안에서 2~3시간 가량 덪고, 비빈다.⁶⁷ (사진1-6), (사진1-7)

‘화력이 적당한 좋은 불’을 얻는 것은 좋은 차를 만드는 비결 중의 하나이다. 좋은 불은 연기가 나지 않아야 하고,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불의 온도가 낮아서 차가 덪어지지 않고 익어서는 안된다.⁶⁸ 적절한 불기운으로 얻을 수 있는 차의 眞味·眞香·眞色을 『茶神傳』의 <造茶>에서는

…불기운을 고르게 하면 빛깔과 향기가 모두 아름다워지고, 현미함을 다하지 못하면 신령스런 맛을 갖추기가 힘들다.⁶⁹

고 하였다. 曉堂이 범제 한 蒸茶는 釜炒茶에 비해 만들기가 무척 까다로운데, 불보기를 섬세히 하지 않으면 데쳐진 찻잎이 눌러 붙어 타버리기 때문이다. 인권한은 “... 曉堂의 따끈한 작설차를 입안에 넣고 목으로 넘겼을 때, 이 때까지 어느 차에서도 느끼지 못한 깊은 맛을

⁶⁷ 이 과정은 단순하면서도 숙련된 기술을 요구한다. 집중하지 않으면 찻잎이 누르거나 타기 때문이다. 「덪는다」는 것은 「볶는다」는 것과 다르다. 「데치는」 것과 「삶는」 것의 차이점과 같다. 찻잎의 습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덪는 것인데 이때 장갑 낀 두 손으로 차 잎을 연방 뒤짚으며 비벼댄다. 이 「덪는」 기술이 곧 차맛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⁶⁸ 석용운, 『한국다예』(서울:초의, 2000), p.238.

⁶⁹ 이종찬外, 『초의집』(서울:동국역경원, 2002), p.362.

張意恂, 『茶神傳』 <造茶>, …火候勻 停 色香美 玄微未究 神味俱妙

느꼈다.” 고 회고 하고 있다.⁷⁰ 曉堂의 法製 솜씨는 茶의 眞味를 느끼게 하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던 같다.

⑥ 된은 차잎을 삼베 보자기로 싸 묶어 약간 띄운다. (사진1-8), (사진1-9) 그리고, 다시 손 바닥으로 밤을 새워가며 차 잎을 비빈다. 그러면 차 잎이 돌돌 말리면서 진액이 우러난다. 이 손바닥으로 비비는 작업 역시 된는 것에 못지 않게 기술과 정성이 따라야 된다. 이 과정이 다른 차의 법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어느 즈음 되면 무명 보자기에 싸서 찹통에 찢는다. 찢 찻잎은 깨끗한 방으로 가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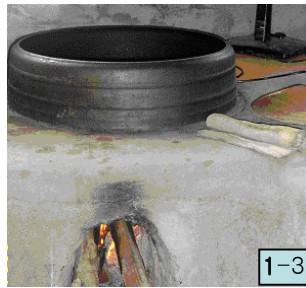
방에서의 작업은 다소 조심스럽다. ‘般若露’의 오묘한 맛이 이 작업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은 한밤중에도 간간히 차를 넣어둔 방에 들어가 손을 보아야 한다. 마지막에 ‘끝손질’을 하여 茶 만드는 일을 끝낸뒤 茶 봉지에 나눠 담은 부초차와는 달리 般若露는 적어도 보름 내지 한달동안 만들어진 茶를 분산시키지 않는다. 般若露茶는 한데 모아진 상태에서 서로 어우러져 향과 맛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건조된 차를 손으로 가볍게 비비어 준다.⁷¹ (사진1-10)

지금까지 茶의 法製 過程을 살펴 보았는데, 曉堂은 섬세하고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 蒸茶를 精誠을 다하여 法製 하였다. 또한 차 따는 시기, 찻잎을 선별하기, 차를 만들때의 불보기 등을 초의의 『東茶頌』, 『茶神傳』을 표본으로 하여 그 과정을 참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⁷⁰ 인권한, “작설차의 향훈,” 『다담』 (1988.11), p.47.

⁷¹ 채원화, “曉堂의 반야로 제다법,” 『차인』 (1998.7), pp.26-27.

<사진 1> 茶의 法製過程





2. 曉堂의 茶道用心

茶 한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잘 법제된 茶를 준비하고, 茶器와 물, 불 등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茶를 준비하고 음미하는 자세와 마음이 필요한데 이를 曉堂은 차도용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茶道用心이란 茶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茶器를 다루는 실제적인 행위 및 그것을 運用하는 마음 자세까지를 아울러서 말한다.⁷²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용하면서 지켜야 할 차생활의 규범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茶를 달이는 데 필요한 茶具·물·불 등이 있으며 그 요소들을 잘 운용하여 멋스럽게 간맞는 차를 내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茶를 내어 놓는 주인과 그에 응대하는 손님간의 마음가짐에 관련된 문제이다.

曉堂의 차생활에 영향을 준 草衣는 茶道用心을 ‘차의 體인 湯水와 神인 精茶가 합하여 그 中正의 道를 찾아야 할 것이니, 그 中正의 道를 찾는 본질적인 원리가 구체적인 茶道用心’ 이라 하였다.

이러한 초의의 차정신은 曉堂의 차도용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구체적으로 『茶神傳』, 『東茶頌』을 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차도용심의 내용을 정리 하면서 초의의 茶神傳, 東茶頌의 인용 부분도 살펴 보았다. 曉堂의 茶器는 간단하다. 그의 차정신이 그러하듯 검박하면서도 실용적인 면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 茶器

茶를 담고, 茶를 우려내고, 우려 茶를 부어 마시는데 쓰이는 그릇들을 茶器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茶器는, 삼국시대에는 주로 土器가 쓰였고, 고려시대에는

⁷² 최범술, 『韓國의 茶道』(서울:보림각, 1975), p.34.

靑瓷, 조선시대에는 白瓷가 쓰였다. 茶器는 茶具에 포함되어 있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쓰임새가 구분된다. 茶器를 말할 때 茶具라고는 할 수 있으나, 茶具를 가리켜 茶器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⁷³ 茶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잎차를 우리는 茶罐, 우린차를 담는 찻잔, 식힘그릇, 버림그릇, 뚜껑받침, 가루차를 저어 마시는 찻사발(茶碗) 등으로 구분하나 曉堂은 茶器를 찻종, 차반, 차순가락, 차선, 약탕관, 차정, 차수건, 차통, 차탁, 향로 등으로 구분하였다. 茶器의 용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서로 다르고 새롭게 만들어진 다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적인 변천에 따른 사용상의 필요와 불필요에 의한 변화, 그리고 用語의 變容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차생활을 하는데 쓰고 있는 기물들은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 따라 茶具와 茶器에 대한 호칭으로 혼용하기도 하고 달리하기도 한다. 즉 찻잎을 따는 일, 차를 만드는데 일, 차를 우리고 마시는 일, 차실안의 기물이나 장식품, 찻그릇을 거두고 정리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가리켜 넓은 의미로 茶道具라고 한다.⁷⁴

그러나 曉堂은 그 범위를 극히 줄여 차 담는 그릇(차를 간수하는 그릇)과 찻종과 같은 좁은 범위안에서의 茶器만을 이야기 하였다.

(1) 찻종(茶鍾)

차를 따라 마실 때 쓰는 그릇이며 찻잔이라고도 한다. 위가 벌어진 것을 찻잔, 엮어 놓았을 때 종의 형태인 것을 찻종이라 한다. 그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잔의 입이 넓고 아래는 좁으며 몸통이 낮은 것을 鍾이라 하며, 잔의 입이 넓고 아래는 좁으면서 굽이 높게 받쳐져 있는 것을 杯, 盃라 하고, 잔의 입과 아래의 넓이가 비슷하고 몸통이 높으며

⁷³ 신수길, 『茶道具』(서울:술과학)2005,p.47.

⁷⁴ 상계서, p.41.

수직으로 생긴 술잔 형태의 鍾으로 구별할 수 있다.

曉堂은 찻종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찻종은 抹茶를 행하는 경우에 쓰이는 차뚝배기와 엽차를 마실 때에 쓰이는 찻종과는 전혀 다르다, 엽차인 경우에도 극히 細雀인 경우와 일상으로 쓰이는 矮雀의 경우와 또한 그 중간품이라 할 수 있는 상용 접객시에 사용되는 銘茶의 경우 등등에 따라 자연 달라진다.

…… 찻종은 그 빛에서 볼 때에는 흰빛 검은빛 푸른빛 등 여러 가지의 광택을 가진 찻종이 있으며, 큰 중발(中鉢)이나 백합 조개껍질처럼 크지 않고 조그맣게 된 것도 있다. 다시 그 잔이 구워진 편으로 볼 때 硬質의 도료로 된 것이 있는가 하면, 토기, 뚝배기처럼 중지기로 된 것도 있다……⁷⁵

曉堂이 말하고 있는 말차를 행하는 경우의 차뚝배기란 요즘 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茶碗이다. 보통 沙器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鉢 또는 찻사발이라고도 한다. 차완은 다른 그릇에 비해 쓰임새가 좋고 찻물에 의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⁷⁶

또한 찻종은 엽차, 즉 잎차를 마실 때 쓰는 茶器이다. 고급차인 우전이나 세작 등을 마실 때에는 가능하면 작은 찻종이 좋고, 중급차(중작)를 마실 때는 중간 정도의 찻종이 무난하며, 하급차(대작)를 마실 때에는 가급적 큰 찻종이 적당하다.

曉堂은 찻종의 빛깔 중 백색을 으뜸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데, 歴史的으로 살펴보면 고려 때의 차생활은 抹茶(가루차)를 즐겨 마셨기 때문에 綠乳가 돋보이는 靑瓷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잎차를 즐겨 마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맑은 翠色의 찻빛을 잘 살릴 수 있는 白瓷가 제격이다.⁷⁷ 曉堂은 茶生活이라는 것이 嗜好的인 것이며 趣味生活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탕빛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茶의 印象을 결정 지운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빛을 감상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빛을 잘

⁷⁵ 상계서, p.35.

⁷⁶ 신수길, 전계서, p.67.

⁷⁷ 이귀례, 『한국의 차문화』 (서울:열화당, 2002), p.134.

받는 그릇이어야 하며, 그 잘 받는 그릇의 빛은 백색이 가장 선명히 알려주는 까닭으로 찻종은 백색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다.⁷⁸

(2) 차반(茶盤)

차반은 손님께 茶나 茶菓를 담아 나를 때 쓰는⁷⁹ 쟁반이다. 이 경우의 쟁반은 木造에 칠을 한 것이 좋지만, 화류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등등의 무늬를 살려 이루어진 차반도 품격이 높으며, 다른 재료로는 정교하게 대나무로⁸⁰ 만들어진 것도 실용적이다.

(3) 찻숟가락(茶匙)

차를 뜨는 숟가락으로, 茶匙나 茶則이라고도 한다. 가루차를 떠서 찻사발에 넣는 點茶用 찻 숟가락으로 고려시대 때 은, 청동, 철 등으로 만들어 사용했다.⁸¹

그 중 동이나 철은 녹이 슬기 쉽고 냄새가 나므로 나무에 옷칠을 해서 쓰거나 대나무로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 대나무는 차의 향을 해치지 않고 냄새도 없으며 습기에도 강하여 재료로 적당하다.⁸² 曉堂은 차숟가락을 가루차와 엽차일 경우로 나누었다. 즉, 가루차의 경우에는 대(竹)를 적당하게 구부려 차 가루를 뜰 수 있게 만들거나, 엽차의 경우는 금속으로 된 것, 화류나 대추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⁸³

(4) 차선(茶筴)

찻술이라고도 하는 차선은 주로 가루차를 찻사발에 넣어 湯을 부은 다음

⁷⁸ 최범술, 전계서, p.35.

⁷⁹ 정영선, 『한국차문화』 (서울:너럭바위, 1998), p.264.

⁸⁰ 최범술, 전계서, p.36.

⁸¹ 신수길, 전계서, p.115.

⁸² 이귀례, 『한국의 차문화』 (서울:열화당, 2002), p.138.

⁸³ 최범술, 전계서, p.37.

차거품이 잘 일도록 짓는데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⁸⁴ 차선을 저으며 거품을 내게 하는 행위를 擊拂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거품을 문인들은 乳花, 綠乳, 雪乳, 雲乳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차선은 하나의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만드는 것인데 60筥에서 200筥까지 다양하다.

曉堂은 차선을 茶筥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대를 극히 잘고 가늘게 쪼개어 만든 것으로 고기 잡는 통발형으로 만든 솔이라고 설명하였다.

(5)약탕관(藥湯罐)

탕관이라고 하며 찻물을 끓이는 注煎子이다. 曉堂은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 질주전자, 유기주전자, 쇠주전자, 구리주전자, 은주전자, 금주전자 등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은 흙이 재료인 질주전자와 사기주전자, 유기주전자이며, 쇠주전자와 구리주전자는 녹이 슬기 쉽고 냄새가 나므로 적당치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은주전자는 사치스럽다 하였으나 요즘 현대인들이 마시는 식수는 오염이 심하므로 은제품을 이용한 살균도 의미가 있을 듯 하다.

그리고 요즘 쓰이고 있는 커피포트는 탕이 끓다가 말아 맹탕이 되어 차맛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탕관으로는 적당치 않다.⁸⁵ 차주전자는 그 안에서 물 끓는 소리가 가장 맑으면서 운치 있고, 청아한 소리를 내면서, 물 끓이는데 공을 드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⁸⁶ 이 더욱 좋은 것이라고 하였다.

(6)차정(茶鼎)

茶鼎은 발이 셋인 솔으로 차를 끓일 때 쓰였으며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많은 湯水를 필요로 할 때와 특히 적은 인원일지라도 茶禮 의식을

⁸⁴ 상계서, p.38.

⁸⁵ 석용운, 『한국다예』(서울:초의, 2000), p.164.

⁸⁶ 최범술, 전계서, p.38.

행할 경우에 사용되었다.⁸⁷ 재료에 따라 곱돌로 이루어진 것을 石鼎이라 하고 금속으로 된 것을 철솥이라 하였다.

曉堂은 茶鼎 안에서 물이 끓을 때 순숙까지는 가능하나, 약탕관에서처럼 결숙이나 경숙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 결숙과 경숙의 단계를 지나 老水가 되어 버릴 것을 염려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茶鼎 안의 끓는 물을 길어 낼 때에는 물바가지(抱子)가 필요하며, 물을 뜬 다음에는 반드시 그 茶鼎 안에 그만한 분량의 물을 다시 부어 놓아야 함을 강조 하였다.

(7)차수건(茶巾)

차건이라고도 하며 차행주라고도 한다. 물기 있는 그릇을 다루는 용도로 사용되며, 찻잔에 쓰는 것과 다른 茶具에 쓰일 것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⁸⁸ 차수건으로는 가는 마포(細麻布)나 면이 좋으며, 빛깔은 흰 것이 가장 좋다. 마포나 면이 좋다는 것은 잘 마르고 물기를 잘 빨아 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흰 빛이 좋은 것은 보기에 깨끗하고 차를 마시는 차인의 맑은 격조에 어울리기 때문이기도 하다.⁸⁹ 또한 차수건은 청결해야 하며, 크기도 너무 크면 사용하기에 거추장스럽고 너무 작아도 쓰기에 불편하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접어두고 쓰는 것이 좋다.

(8)차통(茶桶)

차통은 차를 보관 하는 합(뚜껑에 꼭지가 없는 것) 또는 호(뚜껑에 꼭지가 있는 것)가 있다.⁹⁰ 그러나 현대에는 재질에 따라 종이로 된 것과 나무로 된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⁸⁷ 상계서, p.39.

⁸⁸ 이귀례, 『한국의 차문화』 (서울:열화당, 2002), p.139.

⁸⁹ 최범술, 전계서, p.40.

⁹⁰ 박필금, 『생활속의 다도』 (서울:삶과 꿈, 1998), p.51.

차통은 法製된 茶를 잘 보위하며 공기나 습기 등을 차단 시키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즉,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먼저 精(誠)이 있어야 하고, 차를 마른(攪) 체로 간수해야 하고, 그리고 차를 내는 데는 청결과 깨끗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차도는 정·조·결을 잘 갖추면 외형적으로는 그 문에 들어 섰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차통은 금속으로 되어야 하며 금속 가운데에서도 은납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고 密封 하는 데 필요한 덮개(蓋子)가 따라야 한다… 차통은 차의 특징있는 풍부한 法香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⁹¹

차의 특징 중 하나는 냄새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음식물이나 화장품 냄새, 기타 다른 잡내가 나면 금방 냄새가 베이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차통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며 아울러 미적인 안목에 따르는, 외형적인 조건도 고려하면 좋을 듯 하다.

(9)차탁(茶卓)

차탁은 찻잔 받침 또는 埴라고도 한다.⁹² 차반처럼 크지 않고 찻종 하나를 받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족하다. 따라서 너무 화려한 것은 적당치 않고 접시형의 칠기로 만들거나 木材로 만들어 茶道의 담담한 운치를 흐리지 않도록 한다.⁹³

(10)향로(香爐)

좁은 예로부터 악취를 제거하고 不淨을 없애기 위해 썼으며 어떠한 의식을 행할 때에도 향을 피웠으며 불교에서는 마음의 때를 씻어 준다는

⁹¹ 최범술, 전게서, p.40.

⁹² 상게서, p.41.

⁹³ 동게서.

의미로도 쓰인다.⁹⁴

…… 향로는 點香의 容器이다. 점향한다는 것은 향을 피운다는 뜻으로, 線香의 경우와 가루향(抹香), 片香, 丸香 등의 종류가 있다……⁹⁵

香的 종류에 따라 香爐는 달라질 수 있는 데 돌, 도자기, 토기, 유기, 동, 백동 등의 종류가 있다. 그러나 曉堂은 곱돌로 된 素朴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2) 불(火候)

차를 맛있게 잘 끓이는 요령 중의 하나는 불 기운을 잘 다스리는 일이다. 불 기운에는 성질이 사납고 극렬한 것과 유연하고 체성이 허약한 것 또 기운이 온화하고 적당한 것 등 다양하다.⁹⁶ 眞茶와 眞水를 만드는 비법이 모두 이 불 조절에 달려 있으니 불을 모르고는 茶를 마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선인들은 이러한 불의 조절을 文武火候로 표현했다.

曉堂은 차를 끓이는 연료 중 목탄으로 만들어진 백탄을 으뜸으로 쳤다. 그것은 차를 마시는 공간이 집안이기 때문에 방의 온도에 맞추어 열을 조절하는데는 백탄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 백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숯바구니와 그 용기인 화로, 부손, 부젓가락 문제가 된다. 특히 火爐는 茶室內에서 中心이 되며 그 位置에 따라 茶道俱의 배열과 主人, 손님의 座席이 달라지게 된다.

……불을 피우는 火爐는 차실 내의 기본 되는 위치에 놓여지기 때문에 차실을 말할 때 阮堂과 같은 놀라운 차인들은 竹爐之室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⁹⁷

⁹⁴ 신수길, 전계서, p.187.

⁹⁵ 최범술, 전계서, p.42

⁹⁶ 석용운, 『한국다예』(서울:초의, 2000), p.152.

⁹⁷ 최범술, 전계서, p.43.

曉堂은 찻속에서 숯불이 일구어 졌을 때 물을 철병에 담아 불위에 얹어 끓이는 데 그때마다 火爐의 안팎이나 약탕관 즉, 차주전자나 차술의 어느곳에도 재가 묻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즉 매사에 精誠을 다하여 임하되 그 정성이라는 것이 한갓 形式에 지나 쳐서는 안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을 끓일 때는 화력이 센 불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또 그 화력을 미미하게 잘 보존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 화릇불을 보는 것을 火候라하고 그 화후의 用心은 茶道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茶를 간수하는 用心이나, 法製하는 用心이나, 火候하는 用心은 내면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엄격한 형식이다.⁹⁸.

또한 曉堂은 우리에게 平常心을 강조하며, 茶道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用心이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 用心은 中正의 道에 이르는 근본원리로 禪을 이루는 기초가 되며, 용심을 통해 茶禪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茶人象이라 말하고 있다.

3) 물의 品泉

우리나라 草衣禪師의 『東茶頌』, 『茶神傳』, 唐나라때의 『茶經』, 『十六湯品』, 北宋의 『茶錄』, 明나라 때의 『煮泉小品』, 『前茶水記』 등에 보면 찻물의 품등과 종류, 그리고 선택방법에 대해 많은 기록들이 보인다.

그 중 『茶經』에 “산물이 으뜸이요, 강물이 버금가며, 우물물이 가장 아래이다.”⁹⁹ 라고 하였고, 『茶神傳』에는 “산꼭대기의 샘물은 맑고 가벼우며, 산 밑의 샘물은 맑고 무겁다. 돌 속의 샘물은 맑고 달며, 모래 속의 샘물은 맑고 차가우며, 흙 속의 샘물은 질편하면서 깨끗하다 ... 흘러서 움직이는 것이 고여 있는 것보다 나으며, 응달진 곳에 있는 물이

⁹⁸ 상계서, p.44

⁹⁹ 陸羽, 『茶經卷下』, <五之煮> “其水,用山水上 江水次 井水最下矣.”

햇볕을 향하고 있는 것보다 뛰어나다. 참된 根源의 물은 맛이 없으며, 참된 물은 향기가 없는 것이다.”¹⁰⁰ 라고 하였다.

이처럼 오랜 세월 많은 茶人들은 물의 품천을 따져 茶의 精髓를 맛보고자 하였으며 좋은 물을 얻기 위하여 많은 精誠을 들였다.

曉堂도 차도용심의 내용 중 물의 品泉 부분을 가장 강조하며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데 초의의 『東茶頌』과 『茶神傳』의 내용 중 <湯辨>과 <泡法>, <品泉>을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물의 품천을 ‘茶의 體인 물은 硬水質, 軟水質로 나뉘거나 유황·탄소 등의 화학 성분을 띄기도 한다. 그 외에 鹽基·酸基로 나뉘거나 흐르는 장소에 따라 개천물·냇물·강물로 나눌 수 있다.’¹⁰¹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에 와서는 환경의 변화와 경제발전 등이 물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아주 깊은 산의 물이 아니면 산물을 사용하는 것도 안심할 수 없고, 약수 또한 오염상태가 확인된 것을 사용하되 철분이나 탄산 성분, 또 화학성분이 많이 포함된 것은 피한다. 曉堂은 현대인들은 山水나 藥水를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그럴 경우에는 甕器 항아리에 10시간 정도 삼베를 덮어 공기를 덜썩이도록 하고 물 속의 불순물을 잘 가라앉혀 이튿날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보관한 물은 생기가 손상 되지 않으면서 茶의 眞味를 가장 잘 드러내어 준다고 하였다.

그렇게 생기 있는 물을 藥湯罐(湯罐)에 넣어 끓일 때 나는 소리를 曉堂은 옛 차인들의 표현을 빌어, ‘松風’ 또는 ‘檜雨’¹⁰² 라고 하여

¹⁰⁰ 張意恂, 『茶神傳』, <品泉>

“…山頂泉清而輕水 下泉清而重. 石中泉清而甘 砂中泉清而冽
土中泉淡而白 …流動者愈于 安靜 負陰者眞於阻 眞源無味 眞水無香.”

¹⁰¹ 최범술, 『韓國의 茶道』(서울:보림각, 1975), p.45.

¹⁰² 솔숲 속의 솔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시적인 표현으로 <그림 2>과 같이 글(붓글씨)을 쓸 때 즐겨 사용하였다.¹⁰³



<그림 2 > 曉堂묵적

¹⁰³ 근촌 권오근 박사 소장품 촬영, 2004.11.22.

張意恂이 東茶頌 3절에 인용한

<羅大經의 瀾湯詩>

“松風檜雨到來初 急引銅瓶離竹爐 待得聲聞俱寂後 一甌春雪勝醍醐.”

또한 曉堂은 『茶神傳』을 인용하여 湯의 分別法을 설명하고 있는 데 맹탕의 단계를 지나 경숙이 되기까지의 물끓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물 끓는 모습이나 소리를 구분하는 데 탕변이라 하여 내변과 외변으로 나눈다. 물의 기운이 완전히 맹물의 분을 넘은 경우를 순숙이라 하며, 이리할 무렵에 그로부터 初聲·轉聲·振聲·驟聲과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 같은 것도 맹물과 같이 덜 끓은 물이라 하여 이것을 萌湯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순숙된 탕물을 더욱 끓인 것을 結熟이라고 하는 데, 이 결숙까지도 맹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시 이 결숙에서 대(竹)로 만들어진 받침에 옮겨 두어 2-3분간 지난 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데 이러한 경우를 경숙이라고 부른다.¹⁰⁴

曉堂은 經熟의 단계까지 가야 잘 익은 물, 즉 ‘매우 끓어 뜸이 잘 들은 물’이 되는 데, 이 經熟은 끓는 물 자체의 對流作用이 없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湯이 經熟이 되었음을 살피어 茶壺(茶罐)에 부어 냉기를 가시게 한 후 찻잎을 넣는다. 이때에는 茶를 잘 끓일 수 있는 中正法에 의하는 데 曉堂은 『茶神傳』의 <泡法>을 인용하고 있다

…茶의 많고 적음을 알맞게 가늠하여 中正을 잃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茶가 많으면 맛이 쓰고 향기가 적으며, 물이 많으면 빛깔이 맑고 맛이 적다. … 쓸때마다 냉수로 깨끗이 씻어서 茶罐을 청결하게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茶의 향내가 감소된다. 湯罐이 너무 뜨거우면 茶神이 건실하지 못하고 茶罐이 깨끗하면 水性이 항상 神靈스럽다.¹⁰⁵

茶의 體인 湯水에 향기로운 茶의 神氣가 잘 氤氳 되면 간 맞는 차가

¹⁰⁴ 이종찬外, 『초의집』(서울:동국역경원, 2002), p.382.

張意恂, 『茶神傳』, <湯辨>

…形爲內辨 聲爲外辨 氣爲捷辨 如蟹眼 蝦眼魚眼 連珠 皆爲萌湯

直如 湧沸 如騰波鼓浪 水氣全消 方是純熟 如初聲 轉聲 振聲 驟聲 皆爲萌湯

直至無聲 方是結熟 如氣一縷浮 二縷 三四縷 亂不分 氤氳亂 縷皆爲萌湯

直至氣直沖貫 方是經熟

¹⁰⁵상계서, p.367.

張意恂, 『茶神傳』, <泡法>

“…葉 多寡宜酌 不可過中失正 茶重則味苦香況 水勝則色清味寡…

又用冷水蕩滌 使壺涼潔 不則減茶香矣 確熟 則茶神不健 壺清水性當靈.”

된다. 그 간맞는 茶란, 茶의 五味인 달고, 쓰고, 시고, 짜고, 짙은 맛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것을 말한다. 曉堂은 茶道用心으로 우려낸, 간이 맞는 차를 음미하면서 “차살림을 통한 茶禪三昧의 길은, 끊임 없이 같고 닮으며 꾸러 나가야 한다.” 고 元曉大師의 말을 빌어 강조하였다.¹⁰⁶

인간 사회의 근간이 되는 믿음의 이치에는 참다움이 있다. 이 믿음은 닮으면 얻을 수 있고 믿음을 닦아 증득했을 때엔 무량한 공덕이 있다. (<元曉> “信理實有 信修可得 信修得時 有無量功德”)

차살림은 물과 불이라는 두 相剋性을 조화롭게 다루는 생활이다. 그 조화는 간맞는 차한잔을 우려내는 精誠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具體的인 결과를 낳는다. 이 깨달음을 통하여 사람노릇 제대로 하는 일은 曉堂이 강조하는 생활속의 茶禪이며, 茶道인것이다.

曉堂은 茶器를 다루는 마음가짐도 중요시하였는데, 草衣가 말한 ‘中正의 道’ 를 찾는 본질적인 원리는 具體的으로 茶道用心이라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표2>와 같다.

¹⁰⁶ 채원화, “曉堂 茶道家の 차살림,” 『차인』 (1998.7), pp.29-30.

<표 2> 茶道用心(茶器, 불, 물)

구분	정의 및 용도	가장좋은 빛깔(크기)	재료
찰종(茶鍾)	말차-차뚝배기 엽차-찰종	흰색,	硬質의 도료, 토기
차반(茶盤)	찰종들을 담는 쟁반	적당한 광택과 나무의 무늬를 살린 것	木造 埋木(밤나무, 참나무) 화류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대나무
차순가락(茶匙)	가루차-차가루를 뜰 수 있게 만든 것 엽차- 엽차를 뜨기위한 차순가락		가루차-대(竹) 엽차-금속, 화류나무, 대추나무
차선(茶筴), 차전(茶筌)	대를 극히 잘고 가늘게 잘 일구어 고기 잡는 통발형처럼 만든 작은술		대(竹)
약탕관(藥湯罐)	차주전자	질(흙), 쇠, 구리 등이 실용적	질(흙), 유기, 쇠(금속), 구리, 은, 금
차정(茶鼎)	차술 - 많은 탕수를 필요로 할 때, 차례의식 행할 때		곱돌(石鼎) 금속(쇠술)
차수건(茶巾)	차행주 찰종, 차반, 차주전자 등을 닦는 데 사용	흰색	麻屬(베형겉)
차통(茶桶)	法製 된 차를 담아 보관	차의 保衛와 습기를 잘막아 주는 재료	금속-은납(뚝개) 자기항아리
차탁(茶卓)	찰잔 받침	소박한 것	접시형의 칠기, 紋木
향로(香爐)	點香의 容器	소박한 것	곱돌
불(火候)	차를 끓이는 연료 (화롯불을 보는 것)	백탄	화로, 부손, 부젓가락
물(品泉)	물의 품질 (茶의 體)	물을 길어다가 10시간이상 삼베를 덮어 보관한 品泉	

4) 飲茶法의 實際

飲茶法은 茶를 마시는 방법이다. 茶를 우리기 위한 방법으로 잎차를 우릴때는 烹茶法, 가루차에 물을 부어 휘젓는 點茶法, 차를 끓는 물에 넣는 煮茶法이 있다. 또한 이 모두를 뜻하는 煎茶라는 말이 옛 문헌 속 茶人들의 茶時에 많이 나오기도 한다.

曉堂은 한국의 작설차·가루차, 중국차, 일본차 등의 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는데, 『韓國의 茶道』에 나온 중국과 일본의 茶道具에 관련된 사진들과 그의 애장 茶具들, 그리고 각종 茶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曉堂은 飲茶하는 방법으로 煎茶와 點茶로¹⁰⁷구분지어 이야기 하였다. 즉 잎차를 우려 마시는 경우인 煎茶와 抹茶(가루차)를 끓은 물에 풀어마시는 경우인 點茶를 말하였다. 특히 말차는 차잎을 절구에 쪼거나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것인데, 이것은 차잎을 달여 그 즙을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가루낸 차잎을 통째 마시므로 營養學的로나 健康學的으로 몸에 매우 유익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曉堂은 말차가 가지는 이로운 점은 높이 평가하나 현대인들이 늘 常飲하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 말차는 많은 茶具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뿐 아니라, 달이고 마시는 절차가 꽤나 복잡하고 까다로와 현대 생활에는 다소 걸맞지 않는 일면이 있다 ……¹⁰⁸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 우리들이 마시고 있는 간편하게 상품화된 말차와는 다름을 알수 있다. 또한 曉堂은 말차의 예법이 극도로 의식화·사치화한 것이 일본의 茶道임을 「喫茶와 茶道」라는 제목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茶生의 始原이라 할 수 있는 中國의 茶歷史를 살펴보면 唐나라(618-907)때에는 團茶가 유행하였다. 團茶는 차잎을 찌서

¹⁰⁷ 최범술, “嗜好·禮俗으로서의 茶,” 『讀書新聞』, 1974. 6.9, p.10.

¹⁰⁸ 동계서.

절구에 찼어 떡처럼 둥글게 빻어 말린 茶이다. 이것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마실때에 적당하게 떼어내어 熱湯을 부어 마셨다. 이것이 그 뒤 宋나라(960-1279)때에는 抹茶로 바뀌었고, 明나라에서는 煎茶가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때에 抹茶가 유행하였는데, 1123년(고려 仁宗원년) 송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던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다구 등 모든 것이 중국의 제도를 모방 했다』고 나와 있다. 즉 한국의 抹茶文化는 중국의 抹茶文化에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普遍的인 부분은 있으나 각각의 特殊한 문화적 특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리고 차문화의 보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한민족의 독특한 정서와 융화된 차도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더 실질적인 모습으로 생활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茶를 마실 때에는 형식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되 茶精神을 음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한국의 茶聖 草衣는 「東茶頌」을 통해서 차의 정신을 中正이라고 하였다. 즉 ‘차의 근본인 물(體)과 차의 기운(神)이 비록 온전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나치면 못쓰게 된다.’는 것이다. 즉 曉堂이 말하는 ‘간맛게 하여 마신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주로 문헌을 통해서 飲茶法을 정립시켜 나가다 보니 문헌을 해석하는 연구자에 따라 飲茶法의 모습이 다양하고, 또한 일본식의 茶法도 혼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차는 엄격함과 격식이 넘쳐 흐르는 日本茶도 아니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中國茶도 아니다. 다만 조용하고, 實際的이고, 자유스럽고, 淳朴한 茶인 것이다¹⁰⁹. 曉堂은 일상 생활에서의 應變性과

¹⁰⁹ 황춘선, “韓國의 茶文化에 관한 小考,”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4집(1981), p.334.

儉朴性을 바탕으로 飲茶過程을 현대화하여 차인들이 쉽게 차를 접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曉堂이 실제적으로 행한 飲茶過程¹¹⁰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차를 제 맛나게 달이는 데는 물이 중요하다. 물이란 차를 끓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이 좋아야 맛있는 차를 끓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물을 구하는 일은 곧 맛있는 차를 끓이는 비결이다.¹¹¹

曉堂은 『茶神傳』에 「山水가 으뜸, 강물이 그 다음, 우물 물이 최하」¹¹²라고 나와 있지만 대개의 경우 현대인들은 수돗물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수돗물을 쓸 경우 독 바닥에 고운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수돗물을 받아 하루쯤 그늘진 곳에 두어 불순물을 침전 시킨 뒤에 찻물로 쓸 것을 晴斯 安光碩(전각가·서울)의 말을 빌어 말 하였다.
<응변성>

② 차를 끓이는 도구로는 옛사람들은 곱돌솥이나 놋주전자를 사용했고, 일본에서는 쇠주전자를 주로 쓰고 있지만 알미늄 주전자도 무난하다.
<실용성과 검박성>

③ 불은 숯불이 좋다는 것도 옛말이고, 연탄불이든 전기 풍로든, 時俗(그 당시의 풍속)을 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현실성>

④ 물이 충분히 끓으면 불에서 내려놓아 2-3분 뜸을 들인다(經熟의 단계, 對流 作用). 그런 다음 마실 만큼의 분량을 종지(뚜껑이 없는 작은 그릇)에 따라 놓아 약간 식힌다. 끓은 물의 온도를 약 80도쯤 되게

¹¹⁰ 최범술, 『한국의 멋』,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1974), pp. 66-67.

¹¹¹ 석용운, 『韓國茶藝』, (서울: 초의, 2000), pp. 134-135.

¹¹² 이종찬外, 『초의집』 (서울: 동국역경원, 2002), p. 374.

張意恂, 『茶神傳』, <井水不宜茶> 茶經云 “山水上 江水下 井水最下矣.”

식힌다.

曉堂은 ‘펼 펼 끓은 熱湯에 곧바로 茶를 넣으면 茶가 셋노랗게 익어버려 제대로 우러나지도 않고, 뚝은 맛이 많이 나며 香氣도 죽어버린다’ 하면서 茶를 달이는 것은 ‘삶는’ 게 아니라 슬쩍 ‘데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차의 色·香·味와 차를 달이는 물을 중요하게 생각함>

⑤ 적당한 온도까지 식은 물을 조그만 사기 주전자에 옮겨 붓는다.

<차물의 온도>

⑥ 그리고 차를 넣는다.

『茶神傳』에서는 ‘여름에는 湯(끓은 물)을 먼저 부은 뒤에 茶를 넣고 (上投), 겨울에는 茶를 먼저 넣은 다음에 湯을 붓는가 하면 (下投), 봄, 가을에는 湯을 반쯤 붓고 나서 茶를 넣은 뒤에 마저 붓는 (中投)’ 것으로 나와 있다.¹¹³ 그러나 曉堂은 ‘경험’을 쌓아가는 사이에 스스로 터득한 방식대로 하면 그만이라고 하였다. <실용성>

⑦ 2-3분쯤 지나 우러난 차를 찻잔에 따라 마신다. 이때 차의 빛깔은 맑고 연한 綠빛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차는 색상이 유난히 녹빛임>

⑧ 차의 제 빛깔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찻잔은 내부가 순백색으로 된 것이 좋다.

⑨ 흔히 차물이 얇게 우러난 것을 「싱겁다」, 진하게 우러난 것을 「짜다」고 표현하고 이 짜고 싱거운 것을 조절하는 것을 「간을

¹¹³ 상계서, p.368.

張意恂, 『茶神傳』, <投茶>

“...先茶湯後 曰下投 湯半下茶 復以湯滿 曰 中投 先湯後茶 曰上投 春秋中投 夏上投 冬下投”

맞춘다」고 말한다. 차의 간을 맞출 줄 알고 그 위에 빗깔, 향기를
감별할 줄 알 때쯤 되면 喫茶는 한갓 취미나 기호를 지나 風流의 경지에
접어 들게 되는 것이다.<茶의 中正>

이와 같이 曉堂의 飲茶法을 살펴보면 茶生이 現實的이며 實用的임을
알 수 있다. 飲茶와 行茶를 할 때에 여건을, 時俗에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점은 현대의 차인들이 새겨 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또한 應變的인 면과 개인의 오랜 飲茶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
茶를 마시는 이의 주어진 環境에 따라 정성들여 茶를 준비하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자연스럽고도 소박한 모습이 茶道를 실천하는 참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茶道를 실천하는 모습을 曉堂은 飲茶法의 설명과
더불어 茶道用心으로 정리하고 있다. 茶란 그 출발점이 嗜好 飲料이고
茶道란 그 기호 음료인 차를 마시는, 日常的인 生活에 道를 붙여서 말한
것이다. 즉 생활속에서 眞水와 眞茶로 精誠을 다하여 우린 茶를 간맞추어
잘 마시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속에서 차생활을 하더라도 몇가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 있는 데 그것을 차도용심의 大綱이라 한다.¹¹⁴

첫째, 自然性이다. 차인이 거처하는 차실이나 차기를 다루는 실제적인
행위나 그때 운용하는 마음자세가 자연스러워야 한다.

둘째, 儉朴性이다. 차실, 차기, 차를 내는 행위 및 마음자세가 검소하고
질박해야 한다.

셋째, 中道性이다. 차를 내는 실제적인 행위나 마음자세가 동중정,
정중동의 도리에 맞아야 하고 또한 차가 간이 맞아야 한다.

넷째, 安定性이다. 차기를 다루어 차를 내는 행위나 그 때의 마음
자세가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¹¹⁴ 채원화, 반야로차도문화원 소개 책자, 2004. 12.

다섯째, 應變性이다. 차생활은 때와 장소에 따라 융통성있게 할 수 있음이다. 안방에서와 사무실, 실내와 실외의 차생활을 달리 할 수 있다.

여섯째, 報恩性이다. 차 한잔을 마셔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여 사람 노릇을 잘하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참여한다. 위의 여섯 가지 규범 중에서도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움이 차 생활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道俱로써는 飲茶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茶器가 있다. 茶道用心에서 茶器를 정리하여 설명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茶器의 原型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3. 曉堂의 茶精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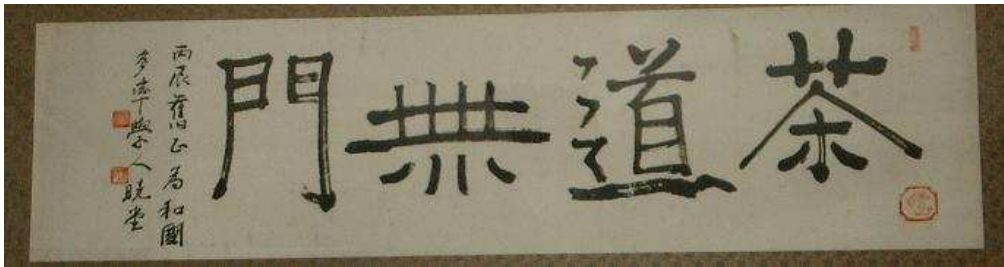
오늘날의 茶道는 문화적 이벤트나 傳統茶禮의 재현, 호사가들의 과시욕을 충족시키려는 보여주기 위한 行事に 치중하여 본래의 차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장영동은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茶精神은 茶道의 흐름이 너무 외향에 치우쳐 본질이 다소 왜곡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茶道는 茶한잔을 놓고 인간이 지니지 않으면 아니될 바른 모습을 닦자는데 그 큰 뜻이 있다¹¹⁵.” 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傳統文化의 繼承과 現代的 實踐을 위해서는 茶精神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曉堂의 茶精神은 크게 茶道無門의 근본이념과 中正의 道, 覺性の 참된 인간생활, 知恩報恩의 精神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曉堂은 茶道 수행을 하는데 있어 '茶道無門'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림 3>의 茶道無門이라는 휘호를 즐겨 썼으며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¹¹⁵ 장영동, 『한국茶道の 속 멋』 (부산: 빛남, 1999), pp.111.

하였다.



<그림 3 : 曉堂묵적 茶道無門>¹¹⁶

茶道無門이란 차의 도에 이르는 길에 특별한 규범이나 격식 혹은 계층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차생활을 즐길 수 있고 어느 장소 어느 때에도 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말한다. 茶道無門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茶道用心'이 그 중심이 된다. 曉堂은 '차도무문'을 휘호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둘째는 中正의 道이다. 曉堂은 차생활을 어떤 格式이나 規律에 매여 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薰陶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茶는 '간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 하는데 이는 茶道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中正'과 상통하는 것이다.

모든 음식은 간이 잘 맞아야 하듯이 차도 간이 맞아야 한다. 음식은 간이 맞을 때 그 음식의 진미 맛보게 되듯이, 차도 간이 잘 맞아야만 좋은 차가 되는 것이다. 우리들 모든 인간의 생활에서는 中道를 잃지 않는 것이 참 멋이다. 차의 생활을 통해 생활에서 중도를 발견하여 치우침 없는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온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¹¹⁷

¹¹⁶ 성원스님(강화도 선원사) 소장품 촬영, 2005. 2. 16.

¹¹⁷ 최범술, 『한국의 차도』(서울: 보림각, 1975), pp.62-63.

즉 道는 생활에 있고, 中正을 잃지 않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元曉大師가 말한 ‘妙契還中’을 吟味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용하게 中正의 大道에 契合한다’고 풀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道와 中이 天理로써 통합이 있다는 것이다. 茶聖 草衣는 그의 저서 ‘東茶頌’에서 中正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¹⁸

……차를 딸 때 그 오묘함을 다하고, 만들 때 그 정성을 다하며, 물은 진수를 얻고, 우릴때 그 중을 얻어야 한다. 체와 신이 서로 어울리면 건과 영이 아울러 갖춰지니 여기에 이르면 마침내 다도에 도달한 것이다.

한잔의 茶를 간맞추어 마시기 위한 精誠은, 平常의 道로써 부단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지인 것이다. 聖賢들은 中正과 뜻이 통하는 道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자왈 “ 道가 행해지지 못하는 이유를 내 알았으니, 지혜로운 자는 過하고 어리석은자는 不及하기 때문이다...”¹¹⁹

이 말은 어진자는 行이 지나쳐 이미 道를 알 것이 없다 하고, 어리석은 자는 行에 미치지 못하고 또 알 바를 구하지 않으니 道가 항상 행해지지 못하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생활속에서의 中正이란 간맞는 한잔의 차를 우려 내어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가져야 함을 의미 하기도 한다. 즉 대중과 더불어 멋스럽게 어울려 살기를 주장한 曉堂의 茶의 精神인것이다.

¹¹⁸ 정영선 편역, 『동다송』(서울:너럭바위,2002),pp.78-79.

張意恂, 『東茶頌』(15節)

“...采盡其妙 造盡其精 水得其眞 泡得其中 體與神相和 健與靈相併 至此而茶道盡矣”

¹¹⁹ 성백효역주, 『대학·중용 집주』(서울:전통문화연구회),p.64.

<中庸章句 제4장>

子曰 “道之不行也 我知之矣 知者 過之 遇者 不及也...”

셋째는 覺性의 참된 인간생활을 목표로 한다. 茶道에서 각성의 생활을 강조하게 되고, 또한 차생활을 통해 각성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平常心是道라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체험을 통해서 그 온전함을 자각하고 터득하자는 것이다. 차는 우리의 두뇌를 맑게 해주고 우리의 몸을 상쾌하게 해주는 물리적 특성이 있다 이는 喫茶를 통해서 覺性의 生活을 실천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즉 覺性生活을 통해서 平常心을 이룰 수 있고, 이는 茶의 길이며 禪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知恩報恩의 정신이다. 曉堂은 차인은 한 잔의 차를 통해 한없는 은혜와 감사를 느끼며 그 은혜에 보답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한 大慈悲의 行願을 그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차 한잔을 마시며 매사에 감사하고 지은보은 하는 확실한 자각을 통해서 자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차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曉堂은 茶道에 이르는 차인의 모습을 茶詩로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

<차와 멋>

눈을 떠 눈이 열리어, 간(間)이 터져 어간이 터져/ 귀가 트이어 귀 문이 열리어,
숨을 쉬어 숨구멍이 터져/ 계란이 병아리가 돼, 간이 터져 껍질이 터져 깨침이 돼
해탈이라네. 도통이라네 현성(見性)이라네/ 어느 것에도 제작을 봐, 상우를 알아
제작인 구색을 알아/ 모든 부정은 상우 안 맞고, 제격이 못되어 실 멋져
안타까워라//

멋을 알고 멋이 되고 구색이 맞고 가락이 된다..... 멋은 대중의 것, 사유는 못 돼.
도가 되고 예가 된다./ 도는 신봉하는 것, 예는 행사하는 것. 신은 참되고
알뜰하며, 예는 성스러워/
알뜰한 예는 범절이라네. 범절은 차례에서 오고 차례는 멋에서 난다./ 멋은 차에서
빛나고 차는 멋에서 산다. 멋은 제 구색인 것, 제작을 이루고,/ 멋은 한이 없어라,
크고 넓고 깊고 오묘해/ 그 어느 것의 합산이 아니며 그 온전함을 말하느니,
사람은 가도 예절은 살아 범절은 살아 반야바라밀이라/ 멋은 영원한 생명, 터지고
깨치고 自在로워라//

우리들 살림살이 멋진 살림살이. 그 누구도 함부로 범하들 못해. 敬仰일
뿐이지/.....차는 멋에서 나고 멋은 차에서 산다.....//

IV. 曉堂의 茶 大衆化 努力

1960년대 중반을 前後하여 曉堂의 茶에 관한 관심은 서서히 紙上에 드러나며, 그의 茶論을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하였다. 60년대의 綠茶 産業은 유아기적 단계인 탓에 녹차인구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茶生活이 비교적 널리 보급된 지방으로는 雙溪寺의 竹露茶와 多率寺의 般若露를 중심으로 한 경남 진주지방, 無等山의 春雪茶를 중심한 전남 광주지방, 그리고 서울을 꼽을 수가 있다. 그 가운데는 同好人끼리 정기적인 茶話會를 갖기도 하고 혹은 학생들에게 茶의 禮節을 가르치는 등 차생활의 대중화에 힘썼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정신질환자 치료에 喫茶療法을 실험하는 정신과 專門醫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우리 고유의 茶生活을 復興’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 大衆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

그 중 茶生活의 復興이라는 측면에서 多率寺를 중심으로한 曉堂의 차관련 활동은 조선후기 이후 쇠락해진 한국 茶文化의 正體性을 찾고, 近代와 現代의 傳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조한다. 그렇다면 그의 茶의 大衆化 노력과 茶 普及活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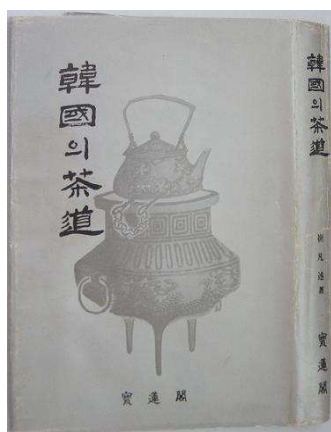
1. 曉堂의 茶文化 運動

1) 『韓國의 茶道』와 茶의 大衆化

曉堂은 大衆들이 이해하기 쉽게 茶에 대한 저술과 강연을 통하여 茶의 大衆化에 기여하였다. 그가 저술한 『韓國의 茶道』는 현대 최초의 茶書로 대중에게 우리의 茶歷史와 茶精神, 茶道具 그리고 한국의 茶人들을

소개하여 茶에 대한 關心을 불러일으켰다. 『韓國의 茶道』는 1966년 일본 동경에 있는 김정주씨가 일본에서 茶文化가 발달된 것을 보고 韓國의 茶傳統에 대해 원고를 曉堂에게 부탁하여 『韓國의 茶生活史』를 작성한 것이 그 모태가 된다. 『韓國의 茶生活史』는 多率寺에서 曉堂이 구술한 것을 김종해씨가 필수하고 변창헌씨가 정서하여, 동경에서 김정주씨가 일역하여 간행하였다. 윤병상 교수는 『韓國의 茶道』 저술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²⁰

1966년 12월 10일경 일본 동경의 거류민 단장 김정주씨가 방한하여 차도에 밝은 이를 찾다가 曉堂 최범술에 관해 듣고 다솔사를 찾았다. 김정주는 曉堂에게 일본에는 차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포들에게는 그와 같은 문화가 없어 위축이 된다고 하였다. 이 말에 曉堂은 ‘차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있었고 또, 훨씬 훌륭한 차문화인 차례가 집집마다 전승되어 오고 있다’고 하자, 그는 우리나라의 차역사를 알기 쉽게 정리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에 曉堂은 『韓國의 茶生活史』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프린트물로 100부 정도 만들어 주었다. 그 후 이 소책자는 몇 백부 계속 인쇄되어 배포 되다가, 그것이 각계에 알려져 경남 사천 군수도 1967년도에 200부를 제작하여 인근에 배포했고, 또 다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간신문인 讀書新聞에 ‘韓國의 茶·茶論’이라는 제목으로 1974년 2월 3일부터 1974년 5월 26일에 걸쳐 16회를 연재하게 되었다. 그 연재물을 다시 잘 다듬어 1975년 『韓國의 茶道』라는 제목으로 보림각에서 출판되었다. 이때의 반향은 매우 큰 것이이었다.



<사진 2 : 한국의 차도>

『韓國의 茶生活史』는 일반인들이 茶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茶에 대한 關心을 갖게 해주었다. 이는 1974년2월부터 1974년5월까지 16회에 걸쳐 讀書新聞에 ‘韓國의 茶·茶論’이란 제목으로 연재 되었다. 또한, 1974년 6월19일에는 ‘한국의 멋(茶·茶論)’이란 주제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의

¹²⁰ 윤병상, “한국의 차도,” 『차인』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1998. 7), pp.24-25.

여름수련회에서 講演을 통해 소개하였고, 大衆媒體를 통하여 一般人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 茶文化의 優越性和 歷史性を 정리하여 茶에 대한 文化的 傳統과 正體性を 확인하는 기회를 주었다.

『韓國의 茶道』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이 읽히는 정통 차서로 現代 茶文化의 理論을 간결하고도 실용적으로 담담하게 엮어 낸 茶의 概論書이다. 曉堂이 작고하기 4년 전에 간행한 『韓國의 茶道』는 茶와 함께 살아온 그의 일생의 명저이고, 현대 茶文化 관련 著述로는 嚆矢였을 것이다¹²¹.

『韓國의 茶道』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序論에서는 ‘凡節’의 내용과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예절의 德目を 닦아가는데 茶生活이 유용하며, 茶生活이 가지는 意義를 “차생활은 우리로부터 오는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밑거름이기도 하고, 소재이기도 하며, 또 미래를 위한 등대이기도 하고, 또한 공덕탑이기도 한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의 차생활이 놀랍고 아름답고 거룩함이 아닐 수 있겠는가” 고 밝히고 있다.

<제2장> 茶生活의 史的考察에서는 한국의 차의 전래와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차역사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제3장> 茶道用心에서는 차생활의 실제에 필요한 茶器와 불, 물의 품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제4장> 茶道에서는 차도의 궁극적인 目的이 일상생활면의 기호에 있으며 이 기호는 건실한 인간생활의 中正의 大道를 실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초의의 中正의 道, 원효성사의 妙契環中, 法喜禪悅과 知恩報恩의 정신을 통하여 차도에 이르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제5장> 茶禮에서는 우리의 전래 풍속인 기제사, 명절, 혼인 등에서

¹²¹ 김지건, “원효학의 맥을 이은 曉堂스님”, 『한국인』, 1987.7. pp.96-99

차례가 이루어 졌음을 말하며 차를 마실 때의 禮儀凡節을 강조하였다.

<제6장> 茶와 禪에서는 우리의 육신과 심정을 가볍고 쾌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는 길이 곧 차와 선을 통해서이고 차로 가는 길에 선의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茶禪一如, 茶禪一味라 할 수 있다.

<제7장> 차와 멋에서는 茶生活의 目的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인간의 기호나 취미에 있고 이 취미나 기호는 바로 무한한 멋을 동경하고 추구하기 때문이며 내면적인 참멋은 法喜禪悅에 있다. 이 범희선열의 멋에 젖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때이다.

<제8장> ‘韓國의 茶人들’에서는 新羅時代의 元曉大師, 설총, 충담, 화랑, 高麗時代의 대각국사 의천, 이규보, 朝鮮時代의 함허당, 청허스님, 사명대사, 서산대사,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초의 장의순의 차생활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草衣를 韓國茶의 中興祖, 茶聖이라 칭하였으며 이들 茶人들을 통해서 제각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茶를 통하여 깊은 통찰력과 여유있는 덕스러움으로 民衆의 어려움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미래의 진정한 茶人들이 이어지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제9장> ‘茶의 내일을 위하여’에서는 우리의 선인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분들이 뜻하고 힘써 왔던 정신의 後繼者로서 당면한 세계사적 광장에서 한국인 본유의 義務感과 使命感으로 내일에 있을 후세에게 한국의 전통을 時俗에 맞게 전하여야 하며 茶生活에 필요한 주택(건물), 복장생활(의복), 식생활의 지혜를 후세들이 올바르게 계승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韓國의 茶道』를 살펴보면 曉堂의 茶生活은 實用的이면서도 風流와 멋스러움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상의 생활에서 茶禪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그 茶禪의 길은 멀고 험한 것이 아니라 ‘눈떠서 밥먹고 차마시는’ 평범함에 있음을 시사 하였다. 또한 미래의 주역들에게 이러한 차생활을 통한 예의범절을 시속에 맞게 알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曉堂의 茶生活의 根幹은 草衣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저술의 주요 내용을 보면 『東茶頌』과 『茶神傳』을 인용하여 그의 茶論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시대 茶文化의 中興者 였던 草衣의 茶道를 계승하여 일반인들에게 소개한 것은 茶文化史的으로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다.

曉堂의 저술인 『韓國의 茶道』가 갖는 意義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曉堂이 오랜 세월 수도생활을 하며 병행해온 차생활이 간략하면서도 쉽게 서술되어 있으며 달관의 경지가 넘치는 차도의 입문서이다¹²². 또한 차관계 서적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始原이 되었다.

두번째, 『韓國의 茶道』를 통하여 草衣 禪師를 일반 대중들에게 茶聖으로 소개하였으며, 草衣의 茶 저술인 『東茶頌』과 『茶神傳』을 인용하여 茶理論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고 있다. 이 저서가 나오기 전에는 대흥사의 草衣 스님에 관해 알지 못했다.

세번째, 中國의 茶書를 소개 하였다. 茶에 관해 無知하던 大衆들에게 대륙의 茶文化를 소개 함으로써 좀 더 넓은 視野로 문화의 普遍性和 特殊性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었다.

『韓國의 茶道』에서 附錄으로 소개 되는 中國의 차서는 唐나라 陸羽의 『茶經』節錄, 宋나라 휘종의 『大觀茶論』으로 원문과 역문을 함께 실었다.

네번째, 『강희자전』에 의거하여 ‘茶’ 자를 ‘다’ 가 아닌 ‘차’ 로 발음했다. 지금도 曉堂 문하에서 배웠던 제자들은 ‘차도’, ‘차인’, ‘음차’, ‘차선일미’ 등으로 발음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차라는 이름은 기원전 2세기경 中國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사전 『爾雅』에 처음 등장한다¹²³. 그 뜻은 ‘쓰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 아마

¹²² 동계서.

¹²³ 쓰지하라야쓰오, 『음식, 그 상식을 뒤엎는 역사』, 이정환譯 (서울:창해, 2002), pp.64-65.

달였을 때의 쓴맛에서 유래된 것 같다.

茶는 표준 중국어인 北京語에서도 ‘차’ 라고 발음하는데 원래는 廣東語의 ‘차’ 에서 비롯된 말이다. 陸路로 전파된 茶는 그 집산지가 廣東 地方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대로 정착됐다. 몽고의 ‘차이’, 북인도의 ‘차야’, 이란의 ‘차’, 터키나 러시아의 ‘차이’, 아랍의 ‘샤’, 한국의 ‘차’ 등은 모두 어원이 광둥어의 ‘차’ 다, 즉 ‘차’ 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陸路를 경유해 茶가 傳播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¹²⁴

2) 茶의 普及 活動

(1) 多率寺의 茶栽培 및 普及

차나무는 열대·온대·아열대성 기후에서 재배되는 特用作物로서 겨울 기온이 최저 섭씨 영하1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거의 冬死 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35도 35분선 이남에서만 栽培가 가능하며 그 이북은 겨울철에 얼어 죽기 때문에 栽培가 안된다¹²⁵. 우리나라에 茶栽培가 가능한 지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과 제주도 전 지역 전라북도 해안선을 낀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 함양, 하동, 진주, 사천, 양산, 울산 지역이 茶栽培에 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나무들은 거의가 寺刹 주변에 야생하고 있고 寺院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茶文化이 寺院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었고 僧侶들이 중심이 되어 茶生活이 유지 되어 왔으며 僧侶들이 차나무를 가져다 번식 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茶의 栽培 適地이면서 알맞은 온도와 지역적 특성을 갖춘 곳이 曉堂이 주지로 있던 泗川 多率寺이다. 多率寺는 茶 遺跡地의 대표적인

¹²⁴ 상계서, p.65.

¹²⁵ 석용운, 『韓國茶藝』(서울:도서출판 초의, 2000), pp.28-29.

곳이며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新羅 지증왕 4년 화엄사를 창건한 인도 스님 연기 조사가 이 절을 창건했는데 靈岳寺라 불리다가 선덕왕 5년(636년)에 2동을 더 건립 多率寺라 개칭하고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가 靈鳳寺라 부르다가 경문왕때 도선국사가 4동을 더 건립 다시 多率寺로 개칭했다. 연기조사, 의상대사, 도선국사가 모두 이름 난 茶僧들이다. 이때 차 씨앗을 심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多率寺 뒤 봉이 운다는 鳳鳴山 주위에는 차나무가 즐비하다. 多率寺가 茶寺로 이름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은 曉堂이 차나무를 본격적으로 재배하며 차밭을 늘려 나갔기 때문이다. 曉堂은 多率寺의 만여 평의 차밭에서 100여 통의 茶를 생산하고 雀舌茶라 불리던 多率寺 茶를 그의 제자 정원호와 합의해 최상품을 ‘般若露’, 상품을 ‘般若茶’로 이름지어 분류하였다¹²⁶.

曉堂은 茶를 정성껏 法製 하여 封茶 하는 데 그 방법은 당시 물자가 귀하던 시대를 반영하듯 아기들이 우유를 먹고 난 빈 통들을 수집해 사용하였다. 빈 통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 한지로 안팎을 발라 붓으로 般若露라는 차명을 써 넣었다¹²⁷. 그런 후 愛茶家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큰 보람으로 삼았는데 曉堂의 茶 인심은 참으로 후해서 그를 아는 지인들은 茶福을 누릴 수 있었다.

3) 茶會의 發足

① 晋州茶人會

오랜 歷史的 배경을 가지고 있는 晋州는 흔히 현대 茶文化의 發祥地라 일컫는 ‘多率寺’가 인접해 있어 曉堂의 영향 아래 다른 지방보다 일찍 茶에 눈을 뜨게 되었다.

¹²⁶ 조영호, “유마의 후예들,” 『대원』 (1987.4. 53호), pp.46-49.

¹²⁷ 김화수, “曉堂스님의 약기”, 『차심』 9집, 10집, 차심문화연구회, 1990.

각 지방의 차인들이 多率寺에 운집해서 曉堂과 차에 관한 문답을 주고 받은 것이 모체가 되어 진주의 茶人들은 1969년 10월 1일 晋州茶禮會¹²⁸를 창립하게 된다. 당시 김창문, 최재호, 박종한, 김재생, 강명찬, 최규진 등의 발기로 晋州茶人會 창립 총회 개최 발족을 하여 초대 회장에 金昌文씨를 선출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茶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된 것이다.¹²⁹

이들은 이듬해 日本의 茶道 우라센케(表千家)의 吉田曉文宗匠의 5명을 초청하여 韓日茶文化交流會¹³⁰를 가지고 한국의 차역사, 차업현황 강연을 하였다. 이 交流會가 오늘날의 국제차문화교류전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들 晋州茶禮會는 韓國茶人會 창립을 위한 몇 차례 모임의 발기 역할을 하여 1979년 1월 20일 韓國茶人會가 창립되자, 그 해 11월 社團法人 韓國茶人會 晋州茶人會로 개칭하고, 당시 대아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하던 亞人 朴鍾漢씨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이들은 ‘차문화연구발표회’, ‘차정신과 예절’ 등을 통해 진주에서 정립된 茶精神을 全國的으로 보급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② 韓國茶道會(韓國茶人會의 모태)

曉堂은 늘 茶生活을 하며 찾아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茶를 대접 하였다. 또한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는 대학생들 단체가 수련대회를 열며 茶道에 관한 理論을 듣고 배우며 또 茶를 맛보며 그 實際的인 것을 익혔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茶를 잘 몰랐고 그나마 曉堂과 인연이 닿아 오는 사람은 茶를 대접 받는데 그것마저도 어른 앞에서 마지못해 다소 쓴 茶를 마시곤 하던 때였다. 韓國茶道會를 발족하기

¹²⁸ 문성매, “차문화의 요람지 진주”, 『다담』 (1990. 8), p.76.

¹²⁹ 상계서, p.77.

¹³⁰ 동계서.

이전에는 同友會 성격의 모임은 몇 있었지만 정식 茶道會의 모임은 없었다. 韓國茶道會를 發足하기 위해서 초대된 사람은 100여명이었는데 참석한 사람은 50여명이었다. 그 당시 참여한 사람들 중 후일에 결성된 韓國茶人會 發足에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다.¹³¹

경향 각지에 曉堂을 존경하거나 아끼는 많은 제방 백가들이 1977년 1월 15일 오후 1시~ 16일 오후 1시 사이에 多率寺에 모여서 韓國茶道會를 結成하였다. 취지는 茶文化 普及, 茶講師 養成, 支會 結成을 하여서 전국적 운동으로 擴大 普及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¹³².

아래 글은 당시 다술사에 차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曉堂이 직접 한국차도회의 창립을 선언한 내용이다.

「한국 차도회」 창립 선언문

차(茶)를 알고 차를 즐기며 차와 같이 생활 하는 동지(同志)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차를 즐기며 차와 같이 육십 년을 살아온 내 생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또한 차를 알고 차와 같이 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나의 所懷를 말씀코자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요 전인류의 행복을 위한 생각에서도 그 기쁨은 같은 줄로 압니다. 여기서 「그」라 함은 저마다 지니는 사람이라는 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등하며, 건실한 인간 생활에 맞는 큰 길을 실천합니다. 또한, 만인간이 행복해야 할 私心 없는 대화입니다. 이 대조화는 경신과 경건과 청정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환희와 보은의 생활에서 저절로 체득 되는 성스러운 경지요 살림살이입니다.

시거나 뺨거나 쓰거나 달거나 짜거나 그 모든 것을 맛보고 힘쓰며 알뜰한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이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이 내가 처음에 밝힌 바로 「차를 알고 차를 즐기며 차와 같이 생활하는 동지들」인 것입니다. 우리 겨레의 유구한 역사적 사명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기적 회합을 결성하길 촉구합니다. 더구나 이는 전인류의 바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민족적·인류적 여건하에 이루어진 오늘의 차회를 여러 동지들은 의미 깊게 생각하실

¹³¹ 채원화, “曉堂과 한국차도회, 그리고 한국차인회,” 『차인』(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1990.1), p.15.

¹³² 김화수, “曉堂스님의 약기 <上·下>,” 『茶心』10집(茶心文化硏究會 1990. 봄), pp.67-71.

것을 믿고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차도회」창립을 선언합니다.

이후부터 여러분은 우리의 뜻을 공동으로 성취 시키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서력 일천 구백 칠십 칠 년 정월 십 오일 오후 한시 한국차도회 창립 茶席에
즈음하여

曉堂 崔凡述 말씀드림, 다술사에서¹³³.

韓國茶道會의 설립 목적은 한국의 傳統 茶文化의 연구와 茶生活 運動으로 국민 精神의 醇化와 예절을 확립 하고 나아가서 世界 茶文化 交流를 통하여 國際親善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위와 같은 취지와 설립목적을 가지고 한국차도회가 창립이 되었고, 회장으로 曉堂이 선출 되었다.

한국차도회의 발족은 近·現代 차문화사적으로 살펴 볼 때 자칫 끊어질뻔한 茶의 傳統을 찾아준 점과 多率寺를 본원으로 하고 전국의 지회¹³⁴와 지회장을 두어 茶文化 大衆化의 基盤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한국 차도회의 모임은 지속되지 못하였으나 창립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茶精神을 繼承하고 茶文化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③ 韓國茶禪會

후일 曉東院 茶禪會의 모태가 되어 曉堂의 정신을 이어 받는 茶會가 된다. 1978년 김종규(삼성출판 박물관장)와 권오근 박사(한국판매교육원장) 등이 주축이 되어 많은 지인들이 曉堂에게서 茶와 禪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삭막해진 현실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말씀도 듣고 철학과

¹³³ 이 모임에 참석했던 최채경이 기록해 둔 원고를 인용함

(묘인 최채경스님은 현재 묘인정사에서 수행중임)

¹³⁴ 서울지구(지회장:청사 안광석), 부산지구(지회장:청남 오제봉), 대구지구(지회장:도우 김중희), 광주지구(지회장:의재 허백련), 대전지구(지회장:윤병규), 진주지구(지회장:은초 정명수), 상임이사 아인 박종한, 재무이사 원화 채정복

의식이 있는 모임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韓國茶禪會를 발족하게 된다¹³⁵.

시기적으로는 작고하기 일년 전쯤이었으며 서울 종로구 팔판동에서의 일이었다. 그를 따르던 분들로 佛敎를 배우고 茶를 마시는 형태의 모임으로 탄생했으며 그 모임에는 정치가, 대학교수 등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렸다. 모임을 조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니 저절로 茶禪會가 만들어졌다. 그 모임에서는 애국열사들의 시가 낭송되기도 했고, 詩·書·畫·茶가 話題가 되기도 했다. 이 무렵에는 金忠烈, 金鍾海, 金相鉉, 重光스님, 권오근, 金宗圭 등이 가르침을 받았다. 曉堂의 문하에서 茶를 배우고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이들은 現代 韓國 茶文化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다 정원호, 화중 김종해, 토우 김종희 등은 고인이 되었고, 사학자인 김상현교수, 보성, 선혜, 혜명, 여연 등 여러 스님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¹³⁶

④ 韓國茶人會

韓國茶人會는 77년 1월 多率寺에서 결성 되었던 韓國茶道會(회장 崔凡述)가 해체 되고 이를 더욱 擴大해서 1979년 1월에 만든 茶會이다.¹³⁷ 창립 당시의 임원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문-최범술, 서정주, 신동식, 허진, 박동선, 김운학

지도위원-정명수, 안광석, 이을호, 김종해

회장-이덕봉

부회장-김미희, 박종한

¹³⁵ 근촌 권오근 박사 인터뷰, 여의도 대성빌딩4층, 2004. 12. 8.

¹³⁶ 김지건, “원효학의 맥을 이은 曉堂 스님”, 『한국인』, 1989.7. pp.96-99.

¹³⁷ 채원화, 전계서, p.15.

⑤ 曉東院¹³⁸

茶禪會 모임의 근거지가 된 曉東院은 1981년 3월에 設立, 開院하여 社會教育 道場의 면모를 갖추었다. 강남구 논현동 뉴서울 빌딩 4층에서 시작한 曉東院은 복잡한 도시 속에서도 사방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마련된 조용한 道場이었다.

특히 스승이신 曉堂의 뜻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曉字를 넣고, 새벽이 오는 동쪽인 영동에 자리한 의미를 살려 東字를 각각 借用하여 曉東院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意味 있는 일이었다. 設立趣旨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보은을 위한 社會奉仕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茶文化 交流

儒敎文化의 발전에 따른 茶文化의 쇠퇴로 긴 세월 동안 잊혀져 왔으나 茶가 生活化된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호남 지방은 개인간의 茶文化 交流에 오랜 歷史性을 가진 사람이 많다. 특히 부산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지방에 한국의 차문화와 한국의 차나무에 대한 學術的 交流가 많았다는 사실은 1920~1967년 사이의 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³⁹

현대 茶生活 文化普及과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曉堂은 1947년 이후 1980년 사이 海印寺와 多率寺에 안거 하는 동안 국내외 인사들에게 행해진 韓國 茶에 대한 學問的 理論과 茶會를 통한 交流는 대단하였다. 특히 1975년 『韓國의 茶道』출간은 草衣禪師 이후 현대에 처음 발표된 茶道書籍으로 한국의 차문화 발전은 물론 國際的 地位에 공헌한바 크다 하겠다¹⁴⁰.

경남지방은 曉堂이 머물던 多率寺를 중심으로 한 茶文化 國際 交流가

¹³⁸ 보성스님 인터뷰, 원효정사 동효차회, 2004. 11. 20.

¹³⁹ 김기원, 경남지역의 차문화교류 실태, 『다담』, 1990.6, p.36.

¹⁴⁰ 상계서, p.37.

빈번하였다고 전한다. 그러한 사실은 문헌의 부재로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으나 한국 傳統 茶會를 발전 시켜 역사에 공헌한 바는 부인 할 수 없다.

또한 曉堂이 고문으로 주석하였던 晋州茶禮會는 차문화 교류 및 다례공동연구를 목적으로 日本茶會를 초청하였다. 1970년 3월 일본 「宗匠 茶道 襄千家」인 일본 차연가문이며 기원 차연구회장 「마쓰시다 사도루」 부부가 일본 아이찌 교육대학의 기미야다 히라 박사 부부와 伊達松雄, 近藤有信, 伊藤昭治를 초청하여 15일간에 걸쳐 차회의 시범, 양국의 茶産業 현황보고, 양국의 茶道精神 발표가 있었다.¹⁴¹ 당시 차회 규칙으로 모두 한복을 입고 차회과정의 행동은 笏記에 따라 진행하였다. 차회에 참석한 손님은 茶人으로 통칭했다.

曉堂이 주지로 있던 多率寺 경내의 茶室에서 한국은 寺刹茶法을 일본은 日本茶法을 각각 발표하고 남해 하천재에서는 한국식 祭禮茶法을 발표하였다. 대아고등학교 차실에서는 청소년 교육지도 차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2. 曉堂 茶道의 傳承

古來로 이어온 韓國 茶文化의 명맥을 이어준 曉堂은 수많은 茶人들과 인연을 맺었으며, 茶 벗으로, 弟子로 함께했던 門下生들이 현재 韓國의 茶文化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활속의 茶文化를 활발하게 펼치는 원효정사 동효차회의 보성스님, 대둔사 일지암의 여연스님과 석정원의 선혜스님, 반야로차도문화원의 채원화 원장, 그리고 사학계의 김상현교수, 종교는 달라도 늘 曉堂의 茶精神과 함께 하는 윤병상교수, 김충렬박사, 권오근박사, 삼성박물관장 김종규 등 오늘날 茶文化界의 中樞를 이루는 중진들이 모두 曉堂의

¹⁴¹ 동계서.

門下에서 茶의 薰陶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多率寺를 거쳐간 수많은 文人과 畫家들이 多率寺의 茶室에서 靈感을 받았다. 소설 『등신불』로 유명한 김동리는 이곳 多率寺에서 등신불을 썼고, 현대음악가인 강석희, 서양화가 변중하 등 當代를 대표하는 藝術家들이 이 곳 多率寺의 茶香氣에 젖었다.

이미 고인이 된 우다 정원호, 화종 김종해, 토우 김종희 등은 曉堂의 茶精神을 大衆文化로 전파하고 茶生活 實踐을 통해 曉堂의 茶道를 傳承했던 이들이다.

3. 茶 大衆化에 끼친 時代史的 意義

曉堂은 茶書의 著述과 茶의 普及, 茶會의 發足 등을 통하여 茶를 大衆化 하였고, 이러한 茶 大衆化 運動은 茶에 대해서 無關心 하던 一般人的 關心을 불러일으켰다. 이후로 茶 成分에 대한 연구, 茶의 嗜好飲料로서의 역할, 傳統文化로서의 계승 측면과, 禮와 道의 教育적 측면 등, 茶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復興이 일어났다.

현대에 들어와서 茶가 一般人들에게 認識되고 大衆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嗜好飲料와 우리의 傳統文化의 再發見이라는 측면에서는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에는 학술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茶에 함유된 여러가지 成分이 分析되어 발표되었다. 인하대학의 류춘희·정재기가 쓴 “한국산 녹차에 관한 연구(1973)”, 전남농업대학의 金燿이 발표한 “차엽의 성분과 관한 연구(1977)”, 同 대학의 김동연이 발표한 “한국산 엽차의 특수 성분과 관한 연구(1979)”, “한국차의 유래와

현황(1980)” 등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차의 효능이 발표되었고, 한국 차 분야의 振興을 촉구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으며 一般人들도 飲茶生活의 중요성을 再認識 하기 시작하였다.

曉堂의 茶에 대한 著述과 講演, 전국적인 茶會의 結성은 한국에서의 茶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茶文化 運動을 일으키는 始發點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차문화의 부흥을 이끌어 낸 曉堂에 대해 김운학은 『韓國의 茶文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오늘날 한국에 茶의 관심이 이만큼 고조되고 요즘 그 붐마저 일게 되게끔 된 뒤에는 이 曉堂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大興寺 應松을 중심한 우리 茶의 것들이 그동안 있었겠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는데 曉堂이 이것을 소개하고 강연하고 또 <讀書新聞>이나 紙上에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 茶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 국가에서까지 우리 傳統茶를 찾고 조사하는 일을 하게 된 것도 그 큰 힘을 준 것이 역시 이 曉堂에게서 였다.¹⁴²

또한, 최규용은 『錦堂茶話』에서 曉堂을 茶人으로서 우리나라 屈指의 大家로 평가하고 있으며 大衆茶道 실천을 통하여 茶道 發展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曉堂 최범술선생은 茶人으로서 우리나라 屈指의 大家이시다 …… 『韓國의 茶道』는 草衣 禪師 이후 우리 한국 茶人에게 큰 寶典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江湖의 茶人이 좁은이 넓은이 할 것 없이 다술사에 雲集해서 茶에 대한 문답을 하는 것을 보면 曉堂 선생은 실로 우리나라의 茶寶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요즘 와서 曉堂 선생은 茶道 발전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大衆 茶道를 위주로 하고 계신 듯하다.¹⁴³

이러한 曉堂의 茶 大衆化 노력으로 우리의 茶文化 傳統을 되살리고, 一般人들이 茶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生活속에서 飲茶를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¹⁴² 김운학, 『한국의 차문화』 (서울:현암사,1982), pp.78-79.

¹⁴³ 최규용, 『錦堂茶話』 (서울:이른아침, 2004), pp.244-245.

V. 結 論

韓國의 茶道文化는 文獻에 나타난 記錄만으로도 약 1300여 년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또한 宮中에서는 儀式으로서, 士大夫家에서는 儀禮와 餘茶文化로서, 宗教人에게는 求道와 修養의 方面으로서 쓰여졌으며 庶民들에게는 實生活(常備藥)속에 함께 하였다. 따라서 韓國의 茶道文化는 韓民族의 대표적인 生活文化로서의 正體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茶道文化의 역사적 흐름을 이어주고 한국의 精神的 文化로서 役割을 하게끔 이끌어 준 曉堂이 現代 茶文化界에 이바지한 功勞와 影響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茶의 概論書인 『韓國의 茶道』를 저술 한 것이다. 『韓國의 茶道』는 조선시대 草衣의 『東茶頌』, 『茶神傳』 이후 현대에 와서 最初로 씌어진 茶 著書이다. 이 저서를 통해 草衣가 茶聖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소개 되었다. 또한, 陸羽의 『茶經』 節錄과 徽宗의 『大觀茶論』 등도 부록으로 엮어, 原文과 譯文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中國의 차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韓國의 茶道』는 茶關係 著書들의 표본으로 그 후 출간 되는 茶書들이 대개 이 책의 體制를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다.

둘째, 曉堂의 독특한 法製 방식인 蒸茶法을 전수했다는 점이다. 蒸茶法은 다른 法製 방식과는 달리 찻잎을 채취한 뒤 뜨거운 물에 잠깐 데친 뒤 法製하는 방법으로, 빈속에 마시거나 장복해도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한국의 傳統 茶文化를 草衣로부터 계승하여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一般인들이 보다 쉽게 茶文化를 이해하고 차생활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이다. 茶의 法製, 飲茶法, 茶道用心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草衣의 『東茶頌』, 『茶神傳』의 내용을 정리하여 현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넷째,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大衆的인 茶道를 선도적으로 이끈 점이다. 특히,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茶가 아닌 共同의 文化로 향유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일환으로 茶會를 發足 하였으며, 茶關聯 著作物 저술 및 大衆媒體를 통하여 茶의 生活化를 주장하였고, 茶關係 文獻을 發掘, 蒐集하여 紙上에 발표 하였으며 多率寺의 차밭에서 茶를 法製하여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飲茶法과 그 精神을 전파하였다. 그러한 활동들 중 가장 意義가 큰 것은 韓國茶人會의 모태가 된 韓國茶道會를 發足한 것이다. 韓國茶道會는 전국적으로 支會를 두어 茶文化 大衆化의 礎石이 되었다.

다섯째, 위에 열거한 공로 이외에도 茶文化史的으로 의미를 둘 수 있는 요소는 現代 茶道界를 이끌고 있는 많은 指導者들을 輩出 하였다는 점이다. 茶界에서 曉堂의 業績은 수 많은 門下生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曉堂의 『韓國의 茶道』 저술, 茶의 法製, 茶의 精神, 茶의 生活化를 통해서 茶文化 運動이 1970년을 전후하여 범국민적으로 일어났으며, 國家的으로도 크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즉, 커피로 인한 외화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傳統茶의 研究를 활발히 하게 되었으며 茶關係 文獻의 發掘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曉堂을 주축으로 하는 경남의 淸州茶禮會를 필두로 우리 사회에 茶生活 習俗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일부 階層의 嗜好物로 남게 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傳統茶는 어떤 국한된 階層, 儀式的이거나 地方的이거나 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 누구나가 부담없이 마실 수 있을 때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하겠다.

茶道無門, 中正의 道, 自覺, 知恩報恩의 정신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曉堂의 茶精神을 통해 茶는 日常生活에서 精神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文化的 資産이라 생각된다. 알뜰한 살림살이를 통하여 儉朴한 茶生活을 영위하는 우리의 모습이 茶道無門에 들어서는 것이며, 茶道用心을 이해하고 實踐하는 茶生活을 통해 中正의 道를 익히고, 茶를 吟味하며 자신을 깨닫는 삶, 그리고 차한잔을 통해 세상과 타인에게 감사와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각박한 현실 속에서 茶禪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現代의 茶文化은 우리의 고유한 茶傳統인 宮中茶禮, 閨房茶禮, 禪茶, 祭禮儀式 등을 재현하고, 行茶를 중심으로 茶樂, 무용, 이벤트 등 문화적 행사로 復興期를 맞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다양한 학술적 행사와 茶會를 통한 茶文化의 전파, 학교를 통한 茶教育 등이 활성화되면서도 아직 大衆이 日常生活에서 茶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飲茶文化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茶生活이 값비싼 茶具와 화려한 茶室, 高價의 衣服과 茶, 규범화된 行茶法 등에 치중하여 茶를 새로운 身分的 誇示慾으로 전락시키는 愚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曉堂이 지향하는 생활속의 儉朴하고 應變性있는 알뜰한 차살림이 우리의 茶文化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활속에서 茶禪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茶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茶會와 教育機關의 커리큘럼이 좀 더 科學化되고 體系化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茶教育을 위한 教育課程의 개발과 師範의 육성, 教材의 개발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아직은 쉽게 大衆적으로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曉堂의 茶精神을 계승하고 茶生活의 大衆化를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曉堂에 대한 茶 관련 연구를 좀 더 具體化하고, 茶道用心을 體系的으로 정리하여 ‘曉堂茶教育課程’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向後的 研究課題로 남겨두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 김운학, 한국의 차문화, 현암사, 1981.
- , 전통다도 풍속조사,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0.
-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 한길사, 1991.
- 석용운, 韓國茶藝, 도서출판 초의, 2000.
- 이 정, 한국불교인명사전, 불교시대사, 1993.
- 임중빈, 만해 한용운, 서울:범우사, 2000.
- 임혜봉, 茶聖 초의선사와 대둔사의 다맥, 예문서원, 2001.
- 장영동, 한국茶道의 속 멋, 빛남, 1999.
- 정영선, 다도철학, 도서출판 너럭바위, 2000.
- 정원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동국출판사, 1983.
- 최규용, 錦堂茶話, 이룬아침, 2004.
- 최범술, 한국의 차도, 보련각, 197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황춘선, 韓國의 茶文化에 관한 小考,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4집, 1981.
-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편찬, 독립유공자공훈록제8권,
의열투쟁추가포상자(86~89), 국가보훈처, 1990.
- 불교신문사편, 한국불교 인물사상사, 불교신문사, 1990.

2. 논문

- 구영분, 한국 차생활 교육장 연구,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2001.
- 김복진, 의재 허백련, 중앙대석사학위논문, 1977.

3. 정기, 비정기 간행물

- 김광식, 만해와 효당 그리고 다술사, 유심, 2001, 가을.
- 김기원, 경남지역의 차문화교류 실태, 다담, 1990.6.
- 김지건, 원효학의 맥을 이은 효당 스님, 한국인, 1989.7.
- 김범부, 김범부의 회고, 대한일보.년도?.3.18.
- 김진태, 효당과 다술사,그리고 차, 차인, 1998.7.
- 김화수, 효당스님의 약기, 차심9집,10집,차심문화연구회,1990.
- 문성매, 차문화의 요람지 진주, 다담 1990. 8.
- 신형로, 내가 만난 범부선생과 효당스님, 季刊茶心 창간호,1993.봄호.
- 여 연, 차의 증정과 인간 정신의 위대한 만남, 차인, 1998.7.
- 오제봉, 50년의 법연이 너무도 허망합니다, 국제신문,1979.7.18.
- , 목향차향, 月刊茶談, 1988.11.
- 윤병상, 韓國의 茶道, 차인, 1998.7
- 이기윤, 토우 김종희, 다담, 1987,7.
- 인권한, 다술사의 차향, 설록차, 1986.6
- 임혜봉, 최범술-열렬한 민족주의자였던 기승(1), (2), 선우도량13호, 대한불교 조계종, 1998.8.
- 조영호, 유마의 후예들, 대원53호, 1987.4.
- 채원화, 효당의 반야로 製茶法, 차인, 1998.7.
- , 효당과 한국 차도회,그리고 한국차인회, 차인, 1990.1.
(한국차인연합회10주년 특대호)
- , 효당의 반야로 제차법,차인,1998,7.
-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 국제신문 1975.1-3
- , 韓龍雲先生의 思想 佛光 41. 1978. 3.
- 홍정표, 그 때를 되돌아 봅니다, 해인 창간호, 해인중학교,1990.
- 영남일보, 茶禪一味,한국의 차.11, 초의 다맥-응송과 제자 박동춘(상), 2005.1.7
- 차심문화연구회, 차심9집,10집, 1990.
- 한국차인연합회, 무등산 기슭에 등지 뜬 수목화의 큰 맥, 차인, 2002,1·2
- ,근대 차인의 재조명, 차인, 2001.1.

3. 기타자료

海印僧伽大學 茶經苑, 다로경권합본, 1-4권.

채원화, 반야로차도문화원 소개 책자, 2004. 12.

최범술, 한국의 멋, 한국대학생불교 연합회(유인물), 1974.

ABSTRACT

A study on Hyodang Choi Pom-sul's the Way of Tea

Park, Boeun
Major in Propriety and Tea-Ceremony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Venerable Hyodang, Choi Pom-sul, was a Buddhist monk. He was active in the Korean Independence Campaign, and systematized and popularized the modern Korean tea culture.

Hyodang entered Tasol temple in 1916, at the age of 13. There he studied under the guidance by the Reverend Wolcho. The next year Hyodang moved to Haein temple, where he studied under Zen master Im Hwan-kyung and earned the Bonze qualification. Hyodang's ideology was also influenced by other monks such as Wonhyo, Uichon, and Manhae. His theory and practice of the tea culture was founded primarily on the earlier literary works Dongchasong (a classical poem celebrating Korea's tea) and Chasinjon (a simple guide to making and drinking tea) by the Venerable Cho Ui.

According to the Samguksagi, the official chronicle composed by the order of King In-jong of Goryeo in 1145, Korean tea traditions began

under Queen Seondok (632-647), the 27th monarch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on of Silla, under the Goryeo Dynasty it continued to flourish and spread to all regions and social strata in Korea. The practice of Korea's tea-drinking traditions declined around the end of the Choseon Dynasty, and nearly disappeare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1910-1945). In 1945, when the modern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there were only one or two masters in each province who still practiced Korean tea culture. At that time there was a man who dedicated himself to rediscovering and spreading Korea's tea-culture traditions, and it was Hyodang.

Hyodang's interest in tea was naturally oriented. His father always enjoyed drinking tea, and had introduced him to it since his early age. He also took a great interest in the tea trees around Tasol temple and tea rooms inside the temple. While he studied Buddhism in Japan between 1922 and 1933, he began to compare Korean traditional tea ceremony with Japanese. There were other Korean monks at that time who were also maintaining Korean tea traditions, including Uijae, Hu Bak-ryun in Kwangju, and Ung Song in Haenam. However none of them worked as Hyodang did, to revive the tea culture as a popular, nationwide artform in Korea.

Hyodang's first achievement was to publish *The Korean Way of Tea*, in 1975. It was the first book published about tea in modern Korean, aimed at the general public. No other full-length study of tea had been published in Korea since Cho Ui's *Dongchasong* and *Chasinjon*, and it was the book that introduced Cho Ui to the public, under the saint of tea. The system established by this book set the standard followed

by most tea books that have since been published.

His second achievement was to popularize the practice of tea in daily life. He put emphasis on savoring the tea and sharing the experience with public, rather than catering to any particular social group or guarding his methods as an esoteric secret. In 1977 he founded the first association for Koreans interested in the study of t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Way of Tea”. At his tea plantation in Tasol temple, Hyodang often prepared tea and invited others to share in the spirit of the tradition with him.

His third achievement was to develop the Jeungcha method of manufacturing tea. This involves plunging the leaves into hot water to soften them before the drying begins. The advantage of this method is that there are no undesirable side effects to drinking this tea, even if it is drunk on an empty stomach or kept for a long time.

Hyodang's final achievement was to train a number of tea masters to carry on the traditions of Korean tea culture. Most leading Korean masters of tea today have learned from and inherited his methods and idea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fundamentals of proper tea culture, informed by the spirit and life of Hyodang, in order to well establish and carry on the Korean tea traditions.

附 錄

曉堂 崔凡述 年譜(1904~1979)

년	월	일	내 용
1904	5	26	최중호(崔鍾浩)와 광산(光山) 김씨 사이에서 출생, 경남 사천군 서포면 울포
1909	4		서포면 소리(巢里)로 이사. 까치섬에서 서당 공부(6 세)
1910	4	5	사립 개진학교(開進學校) 입학(7 세)
1915	3		곤양 공립보통학교 졸업(12 세)
	5		구산재(鳩山齋)의 당숙 문하에서 사서, 시전, 서전 등 수학 시작
1916			개진학교 일어교사 北村邦一를 배척하다 퇴학. 다솔사 입산(13 세)
1917	1	10	해인사에서 임환경(林幻鏡)을 은사로 득도(14 세)
	4		해인사지방학림 입학
1919	3		해인사 동학끼리 선언서 1,000 매 복사 배부. 일경에 피체, 진주 감옥에 8 일간 구치(16 세)
1920			(17 세)
1921	3		해인사지방학림 졸업(18 세)
1922	6		일본 도쿄 도착(19 세)
	8	7	박열(朴烈) 동지 만남
1923	4		東京 立正中學 3 학년 편입(20 세)
	6		朴烈, 朴興坤, 陸洪杓 등과 함께 不逞鮮人社 조직, 不逞鮮人誌(月刊) 발행
	9		日 관헌에 대역사건으로 逮捕, 8 개월간 예심거 被逮되었다가 출감한 후 이 경찰서 저 경찰서에서 29 일간씩 피검시키는 '다라이마시'를 3 년간 당함

년	월	일	내 용
1924	12	5	재일본조선불교유학생 43 인, 동경 금강저사에서 원효대성찬양회 조직(21 세)
1925			(22 세)
1926			(23 세)
1927	3		일본 大正大學(예과 1 년) 입학 (24 세)
	4	24	姜在浩와 함께 재일조선불교청년회의 재무간사로 선출됨
1928	4	29	재일조선불교청년회 제 8 회 정기총회에서 다시 理財部 간사로 선출됨(25 세)
	5		금강저 15 호에 「불타의 면영」 발표
	5	14	최영환은 오관수 등 동경 거주 불교유학생들의 불교 교리 연구 기관으로 三藏學會 조직, 기관지 無我를 격월간으로 발행키로 함
	6		금강저 16 호에 「비약의 세계」 게재
	7		다솔사 주지 피선
	12		一光 창간호에 「우담발라화의 재현을 축하하고」 집필
1929	5		금강저 17 호에 「불타의 계에 대해서」 발표(26 세)
1930	3	1	大正大學 예과 3 년 졸업(27 세)
	4	4	大正大學 본과 불교학과 1 년 입학
1931			금강저 19 호에 「화엄교학 육상원융에 대하여」 발표(28 세)

년	월	일	내 용
1932	9		동경에서 김법린, 강유문, 허영호, 박윤진 등과 함께 만당결사(29세)
	12		금강저 20호에 한시 「石蘭台」 발표
1933	3	1	大正大學 본과 3년 졸업(30세)
	4		조선불교 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에 피선. (위원으로는 李寂音, 李重乾(白軒), 李尙圭(취당), 李炳洪(玄圃), 盧在容등)
	6		明星女學校 설립, 同 校長에 취임. 다솔강원 창립. 현대 불교도에게 필요한 불교 교리와 일반 학술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수하여 실재 생활에 적절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강사는 김범부, 김법린 강고봉, 최범술 등
1934	1	1	해인사 法務 피임(31세)
	3		院田에 光明學校 설립(金東里 당시 교사로 재직)
	5		일경에 피체되어 사천경찰서에 2개월간 피검됨
	7		거창경찰청에 6개월간 피검됨
1935	6		전북 임실군 경찰서에 3개월간 피검됨(32세)
	9		다솔사 강원을 해인사 강원에 병합. 개량 강원으로 경영 (강사 : 김법린, 김범부, 최영환(범술))
1936	3		다솔사 불교 전수 강원 설립(金凡父, 김법린 등, 가족일동이 다솔사에 거주) (33세)
	5	20	명성여학교 설립 인가, 교장 취임
	6		해인사 부정분자 숙청(사찰정화 경내지 내의 사옥 제거)

년	월	일	내 용
1937	1		해인사 近村가옥 醜철(34세)
	2	25	31본사주지회의에서 총본산 건설을 가결하고 기초위원 14명을 선정했는데, 기초위원으로 뽑힘
	2	26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31본산주지회의에 해인사주지대리로 참석, 조선불교진흥책에 관해 진술
	4		「삼십일본산주지회동건문기」, 신불교 2호에 발표(1937. 4.)
	5		고려대장경 인경도감에 임함
	6		거창경찰청에 피검
	8	3	선학원에서 全國 禪僧 遺教法會에 참석. 法服 제정을 제안, 현행과 같이함(총람)
	9	1	총독부 해인사 대장경 인출 시작
	11		사간장경 목록 완성 정리
1938	5	11	명성여학교 고등과 인가 받음(35세)
	10	2	일제 경기도 경찰국에 4개월간 피검 (김범부, 海光, 靜海, 雨田, 寂音과 함께 항일 비밀결사 만당조직 탄로로 검거됨)
1939	7	12	만해선생 회갑을 맞아 연회를 다솔사에서 베풀(36세)
	9	1	일본 비예산 天台宗大學 學僧 48人 초청, 다솔사에서 법회 개최. 金凡父 강의, 吳宗植 통역
1940	4		東京 淺草寺 傳道會館에서 강연(37세)
1941	3	1	단재 신채호 선생 문집 착수(38세)
1942	7		洪原에서 한글어학회 사건으로 250여 인과 함께 감금(39세)

년	월	일	내 용
1943	2		경남 도경찰국 유치장 제3감방에 수감된 채 그 안에서 기독교도에 대한 강연(40세)
	7		단재 선생 문집 편찬
	9		일경 경남 도경찰국에 김범부와 함께 13개월 구치됨
	12		金寂音, 김범부, 최범술 등 僧俗 10여 인 不逞鮮人으로 지목되어 경기도 경찰국 고등계에 연행·구금됨(총람)
1944		(41세)	
1945	8	20	김법린, 최범술, 유엽 등 건국청년당원 40여 명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太古寺 총무원 총무원장 李鍾旭 방문, 종단운영권 인수. 전국승려대회준비위원회 설립(42세)
	8	21	최범술 등 35명 재경 승려는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조직함
	9	22~23	전국승려대회 조선불교중앙총무원 조직 (총무원장 김법린, 총무부장 최범술 등) • 사천군 건국회 총무부장에 피임
1946	3		「기미운동과 독립선언서」, 新生 창간호에 게재(43세)
	7		신생 7월호에 「故만해선생 대기를 당하여」 게재
	10		「국난에 제(際)하여 전국동포에게」, 신생 4호 발표.
1947	2	2	미소공동위원회 대한불교단체 대표로 피임(44세)
	4	(陰)	「부처님께서 나신 거룩하신 날을 맞이 하와」를 불교 7월호에 게재
	8	10	재단법인 국민대학 이사장에 취임. 이로부터 1949년 6월 5일까지 이사장에 재직
	10	3	국민대학 교사를 서울시 중구 남산동의 동본원사로 옮김. 이 해에 해인사 주지로 피선됨

년	월	일	내 용
1948	1		「신년초심」을 불교 4281년 1월호에 게재(45세)
	5	10	제헌국회의원에 당선
1948	6	5	국민대학 제15회 재단이사회를 열고 국민대학 분규에 대한 대책 논의. 정운환의 기부를받아 재단을 증자하고, 정운환을 학장에 선임함
	12	26	교단 간부 교체되면서 총무원 총무부장직 사임
1949	1	20	중앙총무원 교정위원회에 위촉됨(46세). (김법린, 권상로, 박윤진 등 12명과 함께)
	6	5	재단법인 국민대학 이사로 취임. 1952년 3월 24일까지 이사로 재직함
	9	29	유엽, 한보순, 장도환, 서인수, 이덕진 등 40여명과 함께 총무원으로 물려가 총무원장 박원찬(朴圓讚)의 사직을 받음
1950	4	15	국민대학 학장서리에 취임(47세)
	6	28	북한군 남침시 被逮
	7		종로서에 연행되었다가 다시 삼화빌딩으로, 다시 국립도서관으로, 옥인동 소위 정치보위부로 퀘짜 속에 든 채 끌려감
	9	19	북진하는 美 함대와 함께 북진하여 3개월 간 咸興日報 사장에 취임
	12	12	함흥서 철수
1951	7	20	해인사에서 공비(共匪) 피습(48세)
	7	25	백련암에서 내습한 공산군 수뇌 이영애, 암도부, 주주호 및 그 일당 200여 명에게 연설. 가야, 야로, 문산, 봉산, 가조, 가북, 수륜, 청파, 쌍림 등지에 포고문을 발포하여 전쟁의 피해를 줄였고, 8만대장경의 소실을 막음
	10	10	해인중학교, 해인사에서 개교

년	월	일	내 용
1952	4	23	재단법인 국민대학을 재단법인 해인사로, 국민대학을 해인대학으로 개편하고, 해인대학을 인가 받음(49세)
	7	13	공비, 해인사에 방화, 학생 등 32명 납치
	8	20	해인대학 교사를 진주시 강남동 112번지로 이전함
1952	9		해인대학장에 취임. 동 대학 재단이사장 피임
1953			(50세)
1954			(51세)
1955			(52세)
1956			(53세)
1957	8		다솔사에서 만해선생 원고 수록 시작(54세) (고려대학교 국문과 학생 임종국, 이화연, 박노준, 인권환 등과 함께)
1958	1		재단법인 汶波학원 이사장에 피임(55세)
1959			(56세)
1960	9	20	한용운연구에 서문 집필(57세)
1961			(58세)
1962	3		원효불교 교단 선포(59세)
	12		「동양화를 본다」 집필
1963	10	5	다솔사 동안거. 반야심경 강의(60세)
1964	7	15	하안거 중 천태사교의 강의(61세)
	12	6	불교신문에 원효대사 반야심경소 복원 발표
1965	9		김종해 등에게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강의(62세)

년	월	일	내 용
1966	9		이장장, 금강삼매경론, 열반경중요 강의(63세)
	11	23	재일교포 단장 김정주(金正柱)의 청에 의해 한국차생활사 집필
1967	5		다솔사 경내를 불도저로 밀어서 크게 넓힘(64세)
	11		(陰 10월 15일) 동안거 결제, 기신론해동소 강의
1968	4	15	행원례(行願禮) 강설(65세)
	4		광주 전남여고 강당에서 허백련 선생, 이방자 女史와 함께 綠茶 및 行茶 강연회
1969	3		대한불교에 「3·1운동과 해인사」 발표(66세)
	7	24	원효대사 반야심경복원소 강의
	12	10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음
1970	8		반야심경 강의
	12		동방학지 11집에 「해인사사간장경관목록」 발표
1971	3	15	「석가탑 복원공사를 말한다」 불교계 2권 3호에 발표(68세)
	3	23	「원효대사 반야심경복원소」, 동방학지 12집에 발표
	4	23	「철창철학」, 나라사랑 제2집에 발표
1972	1	5	김해 南岡 曹正煥先生救國紀蹟碑 건립추진위원회 조직(69세)
	8	15	申伯雨先生에 관한 글 씀

년	월	일	내 용
1973	7	25	한용운전집 간행, 간행사 및 한용운 연보 집필 (70세)
	11	12	청도 운문사에서 차도 강의 「차도용심」
1973	11	24	진선미 꽃꽂이에서 차도강의
	12	18	동국사상연구회의 동계수련대회
	12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경남지부 수련대회 개최 반야심경·차도·만해사상 등 강의.
1974	5	2	「茶. 茶論」, 독서신문에 연재 16회(71세)
	8	2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여자부 차도 수련
	8	5	반야심경 및 금강삼매경론 강의
	8	20	저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간행
	9	25	대각국사 문집 영인 간행(건국대 출판부), 해제 집필
1975	1	1	반야심경복원소 및 천태사교의 강의(72세)
	1	10	부산 국제신보에 「청춘은 아름다워라」 집필 시작
	6		「韓國의 茶道와 茶僧」을法輪 76호에 게재
	7	9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일제하의 불교계와 독립운동사」 집필 위촉 받음
	9		의상대사 백화도량발원문, 만해선생한시고 영인
	10		「정치는 무상한가」, 월간 중앙 10월호에 발표
	11	20	저서 한국의 茶道 간행
	12	29	천태사교의, 불교학개론 강의

년	월	일	내 용
1976	1	1	法輪 83호 신년사로 「全國佛敎徒에 告함」 발표(73세)
1977	1	15	다솔사에서 韓國茶道會 결성(74세)
1978	3		佛光 41호에 「한용운선생의 사상」 발표(75세)
	5		서울 팔관동에 거주
	5	26	서울 팔관동에서 茶禪會 창립
	6	17	서울대학병원 입원
	8	13	「立松判事と朴烈大逆事件」 을 잊지 못할 일본인에 게재
	11	26	제헌의원 白谷 金振九行狀 집필
1979	7	10	낮 12시 30분 정릉 보현암에서 入寂(76세)